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적 경건하게 묵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 멸망했던 소들과 고모라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워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동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0장 15절)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7월 18일 (토) 제 154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동성결혼 합헌 후폭풍, 5년래 종교 자유 위협 경보

바나리서치, 성인 1,012명 설문조사 통해 미국인들 생각 8가지 발표

동성결혼 합헌 판정이 내린 지 3주가 지났다. 아직까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상반된 감정이 교차되는 가운데, 절대적인 대다수인 미국 보통 사람들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는 설문 조사가 드디어 나왔다.

바나 리서치는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자마자 이틀만에 걸쳐 (6월 27-28일)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1,012명에게 집과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반응을 물었다(3.1% 오차율, 95% 신뢰도).



연방대법의 동성결혼 합헌 판정은 2016년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까지 그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1. 미국인들 대부분의 의견이 갈라져 있다.

동성결혼 합헌 판정이 미국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증거를 이변 설문 조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거의 반절에 가까운 미국인들(49%)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43%는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7%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성결혼 합헌이 앞으로 미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었다. 이 설문 역시 긍정적(37%), 부정적(40%)으로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의 법적 인정은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인들의 의견은 분명하게 갈리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단지 시간문제라고 응답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성연애자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진보 진영이 자신들이 '혐오/증오 범죄'의 대상이기에, 흑인들의 민권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평등권'을 주장하는 논

리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55%가 1960년대 시작된 흑인 민권 운동과 동성연애자들의 사랑할 권리 자체를 비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신앙/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연방대법 판정을 많이 지지하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지를 밝히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믿는 신앙/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분명하게 동성결혼 합헌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 할 추세이기에 신앙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43%)과는 달리, 주종이나 주일에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크리스천들(28%)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4. 복음주의자들은 다른 크리스천들보다도 단연코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믿음이나 신앙대로 사는 크리스천보다 성경적, 신학적으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은 절대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반대한다(94%).

(3면으로 계속)

훌륭한 리더는 감사를 표현한다!

WSJ, 듀크대 도라이스와미 정신의학 교수의 '감사관련 성공적 리더십' 소개

직장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는가? 가장 최근 직원, 동료, 또는 고객에게 진심 어린 감사 편지를 보내거나 진정성 있게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 선물을 보낸 적이 언제였을까?

최근 2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자, 감사를 표하는 상사가 더 성공적일 것이라는 점에 거의 모든 이들이 동의했다.

듀크대학 정신의학 교수이자 듀크대 의료센터 의사인 무랄리 도라이스와미 박사는 훌륭한 리더의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조직이나 직장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말한다(Why Thanking Employees Can Make for a Better Leader?).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의 노고와 도움에 대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라며 당연시 여긴다. 또는 직원 보상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가정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적인 연구가 일반적인 통념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3년 심리학자 로버트 A. 에몬스와 마이클 E. 맥컬로우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3개의 그룹이 비교됐다.

그 이후 잇따른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정도가 커지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재정 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최근 구글은 4000명의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지디엔에이(GDNA)로 명명한 연구를 시작했다. 직원의 행복감이 어떻게 업무 몰입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다.

직장 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고마움의 표시가 숙면을 취하게 해주고 기분을 더 좋게 해준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 결과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고 자신이 이끄는 팀의 성공을 돕고 싶다면 자주 다른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필요가 있다.

(12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2면 IS, 라마단까지 테러 투쟁 촉구 수단 심야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16면 인/터/뷰 신혜지 양(브롱스파학교 11학년)

퍼스펙티브스 세미나의 새 이름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세계선교의 성경적Biblical, 역사적Historical, 문화적Cultural, 전략적 Strategic 관점을 단순히 공부하는 데서 헌신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무브먼트)



시론

사슴나무골에서(19):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미국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은 한국의 광복절과 같은 날로 7월 4일(Fourth of July)로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식민지로 분할 통치되고 있었는데, 그중 13개 식민지자주들이 소위 대륙회의를 구성하고 1776년 7월 4일 마침내 자주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미국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국가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축하하며 독립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통적인 소중한 미국의 가치기준들을 하나 둘씩 상실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얼마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서는 흑인 교회에 백인 우월주의 청년 하나가 총을 들고 나타나 무차별적으로 담임목사를 비롯한 흑인 성도 9명을 사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인종차별 혐오범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연방대법원에서는 미국 헌법의 근간과 전통적 가치관을 송두리 채 뒤집어엎는 엄청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언약적 관계가 아니라 하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한지 올해로 239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간 자유민주주의의 이상향이자, 기독교 신앙의 천국과 같은 나라로 여겨질 만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동경과 고움을 받아 온 나라였습니다.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도 분쟁과 고통이 있는 곳이 있으면 정의로운 이름과 명분으로 달려가서 전쟁과 도움을 마다않는 흑기사요 막강한 슈퍼맨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나 중산층의 몰락, 높은 실업률, 치솟는 교육비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교육 시설과 예산, 제조업의 붕괴와 해외로의 탈주로 인한 지속적인 기업의 도산, 건강 의료보험 제도의 실패로 전반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의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위에 이제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통적 가치마저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개국 정신에 근거한 전통적 가정마저 그 존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마지막 때의 타락과 혼란의 모습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서운 것은 이러한 예견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무서운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이 마치 도적처럼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동요되지 말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장).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IS, 라마단까지 테러 투쟁 촉구 수단 삼아

뉴스위크, 금식 절제 기간 맞아 3개 지역 IS 공세 보도

수니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공격의 수위를 높이라고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이슬람국가(IS)는 아부 모함메드 알-아드나니 IS 대변인을 통해 이 같은 음성 메시지를 배포했다. 메시지는 또 라마단 서쪽의 하디타가 곧 IS의 지배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IS는 이날 "우리는 성월인 라마단의 도래를 축하한다"면서 "이번 라마단을 맞아 순교자가 되기를 열망하라"고 독려했다.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에서 더 많은 공격을 감행하라고도 촉구했다.

라마단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에게 이슬람경전인 '코란'을 가르친 것을 기리는 성월이다. 올해는 지난 18일에 시작됐으며, 매

년 시작일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 기간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을 섭취를 금하며 각종 금욕을 강조한다. 평화를 강조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분쟁을 하다가 이 기간만큼은 갈등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는 지난해도 라마단 기간을 활용해 자신들의 전략을 펴는데 집중했고, 올해도 오히려 이 기간 공격을 감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금식과 절제를 통해 경건을 다지는 라마단마저도 IS의 투쟁 수단이 되고 있는 현상을 보도했다(Triple Attack On Three Continents May Signal ISIS Ramadan Strategy).

지난 6월 26일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튀니지의 휴양지 수스, 리우 임페리얼 호텔 부근의 공공 해변에서 검은 반바지와 T셔츠 차림의 라피크 엘 켈리(20)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하얀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있었다. 해변은 유럽에서 온 수십 명의 관광객 차지였다. 앞뒤로 선물을 하거나 아이들과 노는 사람들도 있었다.

엘 켈리는 해변에서 느긋이 쉬려는 여는 현지인과 닮았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비치 파라솔에는 공격용 자동소총이 숨겨져 있었다. 관광객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나 관광객



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IS는 혼돈의 힘을 널리 퍼뜨릴 수 있다.

IS 라마단 공세의 전략적 목적은 복잡하다. 시리아에서 진행 중인 군사 공격은 IS가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려는 힘의 과시를 의미한다. 동시에 소위 IS 수도인 시리아 라카가 쿠르드족 민병대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테러 공격을 다른 나라로 널리 확장하고 있다.

또한 IS는 종교적 표적을 공격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종교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 쿠웨이트처럼 지금까지 안정을 유지했던 나라들을 위태롭게 만들려는 전략이다. 미국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들" 부추겨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 "순교자 되라" 촉구

튀니지 테러 제2의 용의자 체포했다면 배경 밝힐 단서 기대

들을 향해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호텔 입구로 뛰어 들어가며 계속 총을 쏘다. 호텔의 튀니지인 종업원과 엘 우니는 그가 로비에서 튀니지인 경비원 1명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IB타임스에 말했다. 독일인 부부를 뒤쫓아 가면서 경비원에게는 발을 겨냥해 총을 쏘다. 그 광란으로 3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우리는 "튀니지의 이슬람국가(IS) 대원은 리비아나 시리아에 있는 그들보다 덜 무섭다"고 말했다. "적어도 이들은 튀니지인은 죽이지 않는다."

비슷한 시간에 중동과 유럽에서도 테러 공격이 있었다. 쿠웨이트 시티의 시아와 사원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했고, 프랑스 리옹에선 미국인 소유 회사의 공장에서 괴한이 고용주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참수했다. 3건의 테러 공격이 세 대륙에서 3시간 안에 발생했다.

IS는 그중 쿠웨이트 자폭테러만 자신들의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2건도 이전의 IS 공격과 유사한 점이 많다. 6월 26일의 동시다발 테러는 IS의 라마단 공세

와 관련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슬람 단식 성월 라마단은 6월 17일 시작했다. IS는 라마단 기간에 동조세력의 총력을 촉구했다.

이번 테러 공격의 용의자들은 전부 현지인이며 테러단체에 연루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외로운 늑대'(lone wolf,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프로필에 들어맞는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극단주의 무장 단체에 합류하지 않고 자국에서 테러를 감행하는 세 포들을 가리킨다. 그들의 공격은 IS가 뜻이 맞는 '외로운 늑대'들에게 라마단 동안 세계 도처에서 독자적인 공격을 촉구한 데 대한 화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이크 아부 무함마드 알-아드나니 IS 대변인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음성 성명에서 "라마단을 세계의 무슬림에게 승리의 달이 되게 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의 쿠파르(이교도)에게 참사와 패배, 치욕의 달이 되게 하라."

거의 동시에 발생한 이 3건의 테러는 IS가 세계 전역의 '외로운

늑대'들에게 자국 내 표적을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미국 워싱턴 소재 근동정책연구소의 IS 전문가 앤드루 태블러는 "앞으로 외로운 늑대들의 공격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감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다. IS는 시리아에 간접이 없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원격 조정해 현지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

전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혼돈에 빠진 나라는 IS가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니 모든 무슬림이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기에 안성맞춤이다.

IS의 라마단 공세는 지난 6월 25일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날 IS는 주요 공격 목표인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도시 코바니를 급습해 민간인 200여 명을 학살했다고 알려졌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form.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name, founding year (1986), website (www.midwest.edu), and details about 2015 fall semester student recruitment, including degree programs and study options.

동성결혼 합헌 후폭풍, 5년래 종교 자유 위험 경보

(1면에서 계속)

이 수치는 미국인 평균 43%보다 두 배 이상이고, 믿음대로 사는 크리스천들(66%)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복음주의자들은 또한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미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86%). 동일한 맥락에서 동 판결이 복음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도 부당하고, 연방헌법으로도 보호받아야 하는 안된다고 응답하고 있다(각각52%).

5. 40대 미만 믿음대로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은 규범이 된다.

동성결혼, 낙태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 나이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40대 미만의 젊은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에 따라, 이번 판결에 대하여 불과 35%만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수치는 같은 나이 또래 미국인들 평균이 61%에 비하면 -26% 정도나 떨어지는 수치다.

같은 연배에서 명목상으로, 문화적으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젊은 크리스천들은 무려 73%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지지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결혼제도의 정의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존중하는 면은 상당히 빈약하다. 55%만 40대 미만의 믿음대로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제도와 가치에 대한 교회공동체의 전면적인 교육과 바람직한 실천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미국인들 대다수는 나이나 신앙에 상관없이 종교적 기관들이나 성직자들이 강요로 인한 동성결혼 장소 임대나 결혼집례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인들 중 19%만이 종교적 기관이나 성직자가 동성애 배우자들의 결혼에 관한 모든 부탁들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미국인들조차도, 76%가 강

요나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른 장소 임대나 예배 예식 집례에서 종교적 단체나 성직자들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들은 26%나 입법이나 행정 명령으로 종교적 단체나 성직자들이 동성결혼 예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사업체의 경우, 동성결혼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도 역시 미국인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인들은 종교적 단체나 성직자가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동시에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나 사업체에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 평균으로, 35%가 비즈니스나 사업체가 동성결혼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40세 미만의 미국인들은 44%가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믿음대로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33%), 나이 든 크리스천들(27%)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8. 나이 든 크리스천들과 보수, 복음주의 신앙 그룹들은 종교적 자유의 미래를 염려한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으로 인해 미국인들 중 거의 과반수(56%)가 향후 5년래 미국에서 종교적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바라본다. 이러한 관심과 염려는 나이가 들수록 심화된다. 40세 이상의 미국인들 중 62%(40세 미만의 미국인들은 45%)만이 종교적 자유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일수록 이에 대한 염려와 관심은 증폭된다. 40대 미만의 믿음대로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이나 나이 든 크리스천들은 동일하게 77%가, 그리고 복음주의자들 중 93%는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에서의 종교적 자유가 점점 더 위축되고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자기관리(1)-목사다운 목사

목회를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목회를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옳은 발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를 재는 가능자가 제각각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반적 인식은 많이 모이고 건물이 반대하고 예산이 많은 교회를 대형교회로 그리고 성공목회라고 지칭한다.

솔직히 목회란 성공이나 실패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현장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로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대형교회가 되기까지는 때와 장소를 잘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의 탐과 눈물 그리고 각고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통과 절망의 언덕을 넘어야 했고, 아픔과 시련의 계곡을 건너야 했다. 그렇게 일궈낸 성공을 난도질하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목사다운 목사

5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의 경우 지역 환경과 여건 때문에 성장장애의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50명을 올곧게 양육하고 청지기로 키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돌파구가 열리고 성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교회는 목회자의 신앙과 최선을 다하는 열정에 의해 좌우된다. 교인이 50명이라는 이유로 양육과 돌봄을 내팽개치고 목양을 소홀히 한다면 50명도 점차 감소되기 마련이다.

대형교회 목사라고 큰소리쳐도 안 되고 소형교회 목사라고 몽니를 부릴 필요도 없다. 그런 면에서 목사의 자기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는 26세 되던 해 가을 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임직 후 선배 몇 분을 인사차 방문했다. 평소 존경하던 선배에게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고 일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라고 했더니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시오"라고 말해주었다. 필자는 일평생 그 말을 뇌리에 새긴 채 지을 수가 없었다. 사람다운 사람 찾기가 힘들어졌다.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도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리더십이 흔들리고 교회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는 것은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될 사람 때문이었다. 물론 반기독교 집단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공격도 빼놓을 수 없다.

자기관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목회자로서 '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회의장으로 가고 있었다. 회의 책임자로서 그날 다루어야 할 서류들을 뒤적이며 보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필자를 바라보며 "실례합니다만 혹시 목사님이세요?"라고 물기에 "아, 네. 그렇습니다만 저를 아십니까? 교인이세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아닙니다. 저는 교인도 아니고 손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목사인줄 아셨습니까?"라고 묻자 "분위기가 목사님이신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했다. 예기치 않은 대화였지만 천만다행이다 싶었다. 그때 필자의 인상이 조폭두목이나 절도 도둑범으로 비치지 않았다는 것이 고맙기까지 했다.

늘 선한 얼굴, 싸우려는 몸짓, 덩ભ 뒤틀린 표정, 거친 말투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모습이 되면 안된다. 그런 면에서 최후의 순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스테반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격이나 생김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아 태어난다. 그러나 후천적 노력과 관리에 따라 개선도 교정도 가능하다.

내성적 성격으로 의기소침하고 대인기피증이 있는 목사가 있었다. 교인과 마주앉아 원만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설교 시간에도 회중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담임목사실로 들어가 버리는 그를 교회가 반길 리 없었다. 그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3년 되던 해부터 교인들의 불평이 이 입, 저 입으로 건넌다니면서 목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마주 앉아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은 '갈 곳이 없다. 가본댕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다. 그렇다면 목사가 변해야 된다'였다. 그리고 한 가지씩 고쳐야 될 것들과 바뀌어야 될 것들을 노트에 적고 고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잠잠해지고 목회현장은 안정되어 25년 목회를 끝으로 수년 전 은퇴했다.

IS, 라마단까지 테러 투쟁 촉구 수단 삼아

(2면에서 계속)

지난 1월 코바니에서 퇴각한 IS가 6개월 만에 다시 코바니에 침투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그전까지 시리아에선 쿠르드족 민병대가 약진을 거듭했다. 지난 6월 중순 IS는 터키-시리아 국경지대의 요지 텔아비야드에서 밀려났다. 쿠르드족 민병대는 터키와 라카 사이의 IS 주 보급로를 차단했다.

시리아의 외국인 전사들을 연구하는 피터 반 오스테옴은 "텔아비야드에서 쫓겨나고 쿠르드족 민병대가 라카를 압박하자 IS의 라마단 공격이 약간 지연된 듯하다"고 말했다. IS 지도부가 '외로운 늑대'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직접 지원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IS가 그들을 부추기고 투쟁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다.

쿠웨이트시대의 시아파 사원 자폭테러는 IS가 그 나라에서 테러 공격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첫 사례다(AP통신에 따르면 IS의 '윌라야트 나즈드'/'사우디아라비아지역 지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에서 시아파 사원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6월 26일 금

요일 쿠웨이트시에서 시아파 신도가 가장 많이 찾는 이맘 사디크 사원의 기도 시간에 감행된 이 자폭테러로 최소 25명이 숨졌다.

반면 튀니지의 테러 공격은 종과 갈등과는 무관하며, 국내 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관광 부문을 공격해 튀니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 오스테옴 분석가는 "튀니지를 IS의 비옥한 온상으로 만들려면 경제 부문을 공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튀니지의 리우 임페리얼 호텔은 완벽한 표적이었다. 그 호텔의 투숙객과 종업원 다수는 라마단을 지키지 않았고, 남녀가 함께 해변에서 놀 수 있다.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금기시하는 행동이다. 또 그 호텔은 유럽인 관광객으로 가득했다. 지난 3월 튀니지 수도 튀니스의 바르도 박물관에서 무장 괴한의 무차별 총격으로 관광객 22명이 사망한 뒤 튀니지 관광비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4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관광객을 표적으로 한 공격이 발생하면서 튀니지의 허약한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공격

직후 벨기에 항공 제트어플라이가 튀니지 노선 운항을 중지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6월 26일의 테러 공격 3건은 국제사회의 커져가는 걱정거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IS 세파가 곳곳에 숨어 있으며, 그들은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고, 또 서로 공조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반 오스테옴 분석가는 "대다수 서방 국가에 그런 세파가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부름에 곧바로 응한다. 또 서로 보조를 맞추려고 IS와 연락을 취한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국가 지도자의 생각은 다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가 우리의 적은 분명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그 사건들 사이의 확실한 연결고리는 없다"고 말했다.

베지 카이드 애썬시 튀니지 대통령은 AFP 통신에 "튀니지는 테러에 홀로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글로벌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IS가 두각을 나타낸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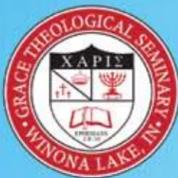
전략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이라크·시리아의 이웃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IS 전사들의 출신지인 유럽 국가들도 자국의 테러를 막기 위해 독자적인 전략을 시행했다. 그러나 그 전략은 국지적으로만 적용되며 서로간의 정보 공유도 제한적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년 동안 테러 대응에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쿠웨이트를 '소중환 파트너'로 부르며 그곳에서 IS 테러리스트 용의자 12명을 체포한 쿠웨이트 당국을 치하했다. 쿠웨이트는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예요원 80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번 시아파 사원 자폭테러는 그런 조치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 대다수는 공격 도중이나 그 직후에 사망한다. 그러나 튀니지 당국은 이번 총기난사에 연루된 제2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독자적인 자생 테러의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목회 초년 (3)

목회 초년이 무리익을 무렵 목포 달리도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기 위해 주소를 받아들었을 때 목포 시내 한 복판에 소재한 교회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주소지가 목포시 충무동이였기 때문입니다.

부임 당시 섬 마을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본래 그 섬에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서로 자신들의 마을에 건축하자는 주장으로 큰 마을 사람들과 작은 마을 사람들의

분쟁이 증폭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섬을 오고가는 페리호는 하루에 두 번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포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배를 타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30분 걸리는 배길에서 오른쪽 줄은 큰 마을, 반대편에는 작은 마을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등 돌리고 있던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서로 미워하며 거리를 두고 있을

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학생들이 모여 철야 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잠깐 사택에 들어왔을 때 긴급히 부르는 소리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한 자매가 마루로 된 예배당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두 명의 다른 자매들이 있었는데 번갈아가며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교우 모두가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비몽사몽간에 교회 앞마당에 군부대의 트럭이 정지하더니 군인들이 마당에 가득한 것을 보고는 군대 귀신이 왔구나 생각하여 교우 모두에게 비상 연락을 취하여 전 교인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전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 가사가 “예수의 피”라는 구절이 나오면 이 자매는 마치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혀를 길게 내밀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주께서

답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왔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의 입을 통하여 작은 마을 형부에게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바다로 갈래 아니면 온 곳으로 갈래”라고 물었습니다. 온 곳으로 가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하자 자매의 몸이 넘어뜨리고 광음을 지르며 귀신은 떠났습니다.

자매는 4시간이 넘도록 죽은 듯이 긴 잠에 들었습니다. 본래 네 자매들이 제가 부임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건축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자 만민니와 형부는 작은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형부는 큰 마을 교회에 남아 있는 나머지 세 자매를 설득하여 자신의 교회에 오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득이 여의치 않자 그들에게 모진말로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 자매는 그런 형부를 위해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날도 형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

어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매들의 형부가 경운기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하여 법적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달리도 마을에 유명한 주정뱅이가 저씨가 있었는데 그날 밤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농노를 끌고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부인에게 알리게 되었는데 부인이 와서 아무리 집으로 모시고자 애를 써도 그날따라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불되고 오랜 동안 씨름을 하다가 농로에 쓰러진 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잠이 들면 추울 것이라 생각하여 가마니 한 장을 덮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하기 위해 경운기를 몰고 농로를 지나가던 그 자매의 형부가 가마니를 덮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타고 넘어진 것입니다. 큰 마을 교회 작은 마을 교회 할 것 없이 안타까운 마음에 구명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작은 마을 교우들은 물론 큰 마을 교우들도 그 자매의 형부를 위해 기도하고 서명 운동

하고 면회를 가는 등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이런 연합의 힘과 기도로 그 자매의 형부는 과실치사로 석방 받게 되었습니다. 자매들은 서로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후에 그 자매는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크고 귀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섬마을 ‘달리교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기억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장년들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온 교인의 믿음이 특심했습니다. 저녁마다 있는 집회가 있었고 학생이나 청년을 비롯한 온 교인들의 열정적인 기도로 강대상과 마루바닥은 성할 날이 없어 몇 개월을 한 번씩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한 기도로 인해 드디어 큰 마을과 작은 마을에는 분열이 끝나고 화평을 찾게 되었습니다.

푸 / 른 / 초 / 장

정요한 목사
(미주베델교회)



니다.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1. 바람을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거나 잘못 설정하면 일대 낭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내 욕심 내 중심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 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Burwood라고 하는 곳에서 현직인 Bill이라는 호주사람하고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잠잘 때 방만 따로 쓰고 같이 TV보고 같이 식사하고 하면서 지냈는데, 이 Bill라는 친구를 보니 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35살이니까 5년 후인 40살이 되면 어떻게 하고, 10년 지난 50살이 되면 어떻게 하고, 노년이 되어서 정년퇴직하고는 노후는 어떻게 하고 하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봉급이 얼마이니 얼마를 저축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마이홈은 몇 년 만에 갖겠고, 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학부형이 되는데, 나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40이 되면 이렇게 하겠고, 내가 50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막연한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 갈 수가 있습니다.

2. 뜨거운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은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 마당에 양동이 뚜껑을 덮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고일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뚜껑을 열지 않고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오픈된 상태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픈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6면으로 계속)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창 13:14-18)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창 13:14-18)

으로 올라갔다면 그에게는 더욱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이지만 여기고는 유혹과 환락과 퇴폐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같이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나안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신 축복

으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 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이것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주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게 생활하는 것하고 목표 없이 지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이제 나는 지금 막 결혼한 신혼생활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지 뭐’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 결혼했으니 몇 년 후에 아이를 낳고, 지금 아빠

우리의 삶은 항상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후퇴와 퇴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43장을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했습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유혹이 있고 환락이 있고 퇴폐가 있는 곳보다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기를 더욱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당장 눈앞의 맑은 물과 소알 평지라는

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이었지만 이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높은 곳을 향한 선택이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곳이 아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www.rptse.com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5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5년 9월 4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5년 9월 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5년 9월 8일(화) - 10일(목)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연방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의 진정한 의미와 대안(하)

“우리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 없다!”-팽팽한 정치지도자들의 “가치관 전쟁”

미연방대법원에서 5명의 판사들이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결정이 떨어지자마자 동성애 운동가들은 기쁨의 환호를 질렀지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동안 미국안의 보수 정치인들과 주정부 판사들이 있는 주에서는 강력한 거절의 목소리 뿐 아니라 이미 미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할 것을 다시 주정부 법으로 막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캔사스주 주지사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은 캔사스에 있는 종교 단체와 성직자가 종교적 신념

밝혔습니다. 따라서 Obergefell v. Hodges 동성결혼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서명운동을 제출하려면 2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알라바마에서는 동성결혼 라이선스를 아직 나눠주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알라바마주에 위치한 반기독교/동성애운동체인 ACLU 대표자는 적극적으로 정치인들과 맞서서 동성결혼 라이선스를 나눠주도록 강요했으며, Association of County Commissions of Alabama는 유인권인 판사(probate judges)에게 미연방 대법원의 지시를 따르라는 혼돈스러운 지시를 내려서 약간의 혼돈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알라바마의 대부분 정치 리더들과 법원에서는 미연방 대법

원!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서명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서명 안하신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동성결혼합법화의 판결이 반복될 수 있는가?

미국 헌법은 연방법이 “나라의 최고의 법률”(supremacy clause)로 설정되어 있어서 주법과 충돌이 있을 때는 연방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역사상 이렇게 미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 적이 없었으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 지난 7년간 미국의 헌법까지 대통령 권리를 남용하여 맘대로 바꾼 적도 없었습니

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서명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서명 안하신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 교회건물 사용에 대한 정관(policy)도 확실하게 반경(boundaries)을 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정관, 서비스의 운영가치관에 자세히 적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교회/비즈니스 정관(document)을 만드는 전문 기독교 변호사(Attorney) 분들과 연결시켜드립니다.

4. 또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이 혼돈시켜 놓은 그들의 마음을 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복의 기회 남아있어...서명운동 해야 결혼식, 주례, 장소사용 등 교회/비즈니스 정관에 명시

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7월 6일경 행정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샘 브라운백은 말하기를,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지만 또한 캔사스와 미국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캔사스는 교회가 동성 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고 기독교 입양 단체가 동성부부에게 아이 입양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하원 법사위원인 앤디 기폰(Andy Gipson)은 “미연방 대법원의 경우 5명의 판사들의 결정이 우리 미시시피 시민들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결혼 정의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독교 신념을 법원이나 문화의 변덕에 맞추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라바마주 정치리더들과 특별히 알라바마 주정부 대법원장인 로이 모어(Roy Moore)는 그동안도 미연방대법원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주중 하나인데, 이번 결과가 나온 뒤 역시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다시 이 법안을 미연방 대법원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원의 판결이 비헌법적임을 강조하며 그 판결을 따를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기 바로 며칠 전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SB 2065이 하원과 상원들의 강한 초당파의 지원으로 통과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 주지사 그레 애보트(Greg Abbott)가 동성결혼합법화가 발표되는 비슷한 시기에 서명함으로써 종교의 자유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 법은 텍사스의 목사들과 교회와 종교 단체가 강제로 신앙을 위반하는 결혼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해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정의 보호 및 신앙의 자유 보호” 법안 온라인 서명운동!

마이클 리 상원의원(Mike Lee, 유타, 공화당)과 랄 라브라돌 의원(Raul Labrador, 아이다호, 공화당)이 First Amendment Defense Act(S. 1588, H.R. 2802)라는 법안을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결혼 합법화 된 것과 상관없이, 동성애운동가들이나, 동성결혼을 교회나 개인 비즈니스에 와서 요청하는 무리한 요구로부터 미국 전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가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동성결혼이 연방법으로 인정되었어도 연방대법원장인 Jon Roberts의 말처럼 미국의 가장 큰 헌법까지 바뀐 것은 아니며 나머지 4명의 미연방대법원 판사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법적 이유들을 기록하였기에, 성경을 믿는 각 주의 정치 리더들은 헌법일차수정안(First Amendment)으로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보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많은 기도와 몰심양면의 후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성결혼은 현재시간으로 합법화 되었기에 교회들과 성도들은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4가지 대안책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대법원의 인정을 통해 ACLU와 인권단체들은 일부로 더 많은 교회들과 신앙인, 목사님들을 목표삼아 공격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들과 목회자들,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도 꼭 법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교회/비즈니스 정관에 결혼과 성향에 대해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의미를 적어놓아야 합니다.
2.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결혼식은 기독교인들과 한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정립시키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고, 다음세대들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현실에 입각하여 세상속의 크리스천들의 영향력까지 다루는 것으로 감이나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Tvnext.org@gmail로 연락주세요.

2016년 대선을 위한 기도와 ACTION 필수

미국은 모든 것이 법으로 통합니다. 나쁜 법(하나님을 거역하는)과 좋은 법(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법)이 함께 존재합니다. 나쁜 법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만”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의 배를 채우고 통과시키는 법안들이고, 좋은 법은 정치인들이 미국의 진정한 “리더”로서 시민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법과 미국의 헌법을 존중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세우기 위해 통과시키는 법안들입니다. 따라서 2016년 대선 때 어떤 정치인들이 뽑힐지,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와 지식을 넓히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isp0316@gmail.com

Q: 목사님, 눅16:1-9절의 말씀을 읽는데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을 했으며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팔로스 버디스 에서 김춘경경사)

A: 역사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성경 난해구절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비유의 목적은 세상재물로 이웃(친구)들을 많이 구제해야 한다는 교훈의 비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비유를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비유의 부자는 토지 재산을 가진 지주였을 것입니다.그는토지 경영 업무를 맡아 보는 청지기를 데리고 있었습다. 빚진자들은 아마 토지를 임대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그들은 지주에게 연간 생산량의 일정한 양을 줌으로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여기의 임명한 청지기는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었고 그는 주인 의 재산을 탕진 혹은 낭비한다는 죄목으로 문책을 당했고 주인은 그를 해고할 것을 통보했고 그전에 후임자가 그일을 인수있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는 의미

받을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해고된 청지기는 떠나기 전에 회계장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속으로 이르기를 자신은 이제 해고되면 땅을 팔만큼 욕해도 감하지 못하며 또 자존심이 강해서 구걸 할 수 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이렇게 하면 작분을 빼앗긴 후에도 살 길이 있을 것이이라며 불의한 방법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기름100말 진 자에게는 50말로 감해주고 밀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감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후에 후 내가 어려울 때에 자기를 잘 대접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그는 주인에게 빚진자들에게 선심을 써서 불의하지만 자기 장래를 위해 예비책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가 자기의 나갈 길 여는데 기만하고 잠으로 지혜로웠기때문에 그자책을 칭찬한 것이 주인에게 잘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구절의 해석은 이 불의한 재물은 재물 자체가 불의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잘못하면 이 세상 재물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여기의 재물은 헬라어로 “마모나스”로서 금전만이 아니라 기타 이세상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구절은 비록 재물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지며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인 그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친구 즉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로 사용하여야 함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어떤 자들은 이 친구를 예수님도 해석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때문입니다. 결국 본 절은 청지기가 빚진자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로서 구제의 손길을 뻗어야 함을 말합니다.

회비무료, 점심제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

1 · 일시: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0:00~ 오후 4:00
· 장소: 조지아 서라벌 레스토랑 (770)497-1155
304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2 · 일시: 2015년 8월 4일(화) 오후 2:30~ 오후 8:00
· 장소: 달라스 수라레스토랑 (972)243-5656
2240 Royal Ln. #106 Dallas, TX 75229

3 · 일시: 2015년 8월 6일(목) 오전 11:00~ 오후 5:00
· 장소: 휴스톤 서울가든 레스토랑 (713)935-9696
9446 Long Point Rd. Huston, TX 77055



강사: 라하채 목사
(뉴욕제자교회)

구약, 신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이볼수있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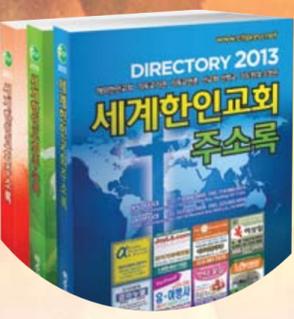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6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리스팅 및 광고 9월말 마감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6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 중에 있다. “2016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처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6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다 음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5) **리스팅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서부아프리카의 로비-왈라(Lobi-Wala)



3개 국가에 거주하는 5개 부족의 통합 프로파일. 로비-왈라족은 가나,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 파소의 나라들이 접하는 블랙 볼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두 가지 별도의 집단으로 나누는데, 그들 언어의 이름을 딴 로비족과 거주지역인 와의 이름을 딴 왈라족이다. 로비와 왈라족은 언어나 위치, 역사, 문화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대개

그들을 하나의 집단인 로비-왈라족으로 묶어버린다. 두 부족은 구르 언어의 방언을 사용하며 이것은 니제르-콩고 어계에 속한다. 1600년대에 왈라족은 맘프루시에서 살았으며 다카리족과 로비족을 통치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 북서부의 와에 정착했다. 1700년 대 후반에 로비족은 그 지역의 큰 부족의 압박을 받아 가나에서 현재 위치로 이주했다. 로비-왈라족은 더 나은 땅과 도시의 일거리를 찾아 지금도 계속해서 이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좀 덜한 편이다. 다른 종족으로부터 계속되는 침략과 공격 때문에, 로비-왈라족은 그들의 독특한 요새형의 가옥과 독화살 무기를 개발해냈다. 그들은 아직도

공격적인 민족이다.

삶의 모습

로비-왈라족은 주로 적당한 농지를 찾아 계속 이주하는 농부들이다. 조, 수수, 옥수수 등의 곡물과 양, 스카쉬, 콩, 후추, 약간의 쌀 등을 재배하며, 지역시장에서 곡물, 특히 수수로 만든 맥주를 판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소, 양, 염소, 닭도 기른다. 임금을 받는 일거리가 로비-왈라족을 가나 남부나 코트디부아르로 끌어들이고 있다.

농지에서 남자들은 밭의 일 대부분을 하고 여자들은 파종과 수확을 돕는다. 여자들은 자신의 채소밭을 경작하며 숲에서 나는 산물을 채집하고 뿔나무를 모으고 물을 길는 것도 한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함께 집을 짓는다.

로비-왈라족은 여러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촌락에서 사는데, 농사를 하고 가족들을 기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착지는 넓게 퍼져

있다. 그리고 관목을 키우는 보다 더 넓은 땅은 촌락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보며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물린다. 아이들이 걷게 되면 비로소 인간이 된 것으로 간주되며 적당한 무덤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돌보며 어린 소녀들은 마을 주변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때로는 어머니를 도와 물을 길거나 곡식을 뿜는다. 또 남자아이들은 아버지 도와 가족을 몰고 다닌다. 그 지역의 다른 부족의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로비의 소녀들도 아버지와 오빠를 도와 가족 치는 일도 하기도 한다.

가정의 신앙 앞에서 다양한 의식이 매년 행해진다. 예를 들어 농사철이 끝날 무렵이면 춤을 추면 풍작을 축하하며 출산이나 결혼, 장례가 있을 때에도 의식이 거행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식은 비밀 사교모임에 입회할 때 이루어진다.

왈라족은 장례식이나 무도회 때 실로폰을 전문적으로 잘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로비족은 가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종족 다 모두 조상의 사랑과 동물, 신상이나 의자를 조각해 만든다.

신앙

로비족 대다수는 전통적인 애니미즘 신앙을 따르지만 왈라족 대부분은 그 지역의 지배적 종교인 이슬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개종"은 디올라족의 무슬림 상인들이 왈라 주에 편입돼 그들의 만데어 대신 왈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던 18세기에 일어났다. 디올라족 무슬림들은 이어 왈라족의 일부가 됐으며 그들에게 이슬람을 전해 주었다.

무슬림이 아닌 왈라족은 로비족의 것과 아주 유사한 신앙과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 부족들의 애니미즘 신앙은 죽은 조상과 자연의 사물들을 중심으로 행해지며 여기에 경배를 드린다. 대지는 공동체

를 지켜보고 토양에 비옥함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조상의 영혼은 자손들을 지켜보고 가정문제에 개입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 조상의 영혼에 음식을 바치고 잘 돌봐야 한다고 믿는다. 영혼을 잘 달래지 않게 되면 굶주림과 불만을 갖게 돼 악령으로 변하게 된다고 한다. 애니미즘 숭배자들은 또 동물과 사물에 있는 영혼을 잡을 수 있으며 그런 후 그들을 기념하여 사당을 세운다고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로비-왈라족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몇 있지만 기독교인은 극소수이다. 그들 대부분은 복음의 분명한 소리를 여태껏 들은 적이 없다. 로비-왈라족에게 복음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선교의 노력과 추가적인 사역자들, 기독교방송, 복음화 문서자료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공화당 지지자 63%, 동성결혼 반대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 중 3분의 2 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미국 시민 3천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응답자 전체로 따졌을 때 동성결혼 반대 비율이 35%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는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공화당 지지자의 52%는 동성결혼 허용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답한 반면, 응답자 전체로는 24%만이 주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여겼다.

이 같은 결과는 스포츠 위커 위스콘신 주지사,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주 주지사 등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에겐 다소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 의원의 경우 대선 캠페인에서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우선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동성결혼 반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허커비 전 주지사 역시 오랜 동성결혼 반대론자다.

노던아이오와 대학의 크리스토퍼 래리머 교수는 "공화당 후보들이 이 같은 입장을 통해 첫 대선 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나이 많은 보수당원들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대와 일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카터 "예수도 동성결혼 인정했을 것..." 충격발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8일 "예수가 동성결혼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이날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성경에 이에 관한 어떤 구절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믿음"이라는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을 "믿음이 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카터 전 대통령은 "예수는 만약 정직하고 신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지지했을 것"이라며 "동성결혼이 누구에게 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사람이 결혼할 권리가 있다"며 "동성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법원이나 교회에 가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터 전 대통령은 '낙태'에 대해서는 "나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오래된 문제였다"며 "예를 들면 예수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임산부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인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래서 갈등을 겪었다"며 "하지만, 대통령 재직 시 내 행세는 헌법과 연방대법원이 해석한 이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랐다"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카터 전 대통령에게 믿음은 중요하며 그는 그러한 사실을 새 회고록인 '충만한 인생: 90세의 회고'에서 다뤘다"며 "하지만, 그의 종교적 믿음도 자신의 연인과 결혼할 미국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케냐서 동성결혼 옹호 오바마 반대 시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월 하순 케냐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 케냐의 정치인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입을 다물고 집(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독설을 날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룬구 칸가타(Irungu Kangata) 의원은 케냐 국회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낙태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케냐에 오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그에게 입을 다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케냐의 정치인들과 복음주의의 교회 목회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친동성결혼 입장을 이를 범죄로 여기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약 700여명의 목회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방문 기간 동안 케냐인들에게 자신의 동성결혼 관점에 대해 발언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아프리카복음주의연맹의 마크 카리우키(Mark Kariuki) 목사는 "우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번 케냐 방문 기간 동안 동성애가 아젠다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한다"며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며 "동성애를 케냐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BBC는 케냐인들이 트위터에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월요일에만 #KenyanMessageToObama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3,000회 가까이 트위터 전송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악관의 언론 담당 조슈 어니스트(Josh Earnest)는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해 케냐에서 동성애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중국 청년들 무슬림 개종 급증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이슬람 개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대학교에 소재한 국립연구조사센터(National Survey Research Centre)에서 발표한 '2015 중국 종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무슬림의 약 22.4%와 가톨릭교인들의 22%가 30대 이



하의 청년들이었다.

인민대학교 불교학 교수인 웨이태동 박사는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슬람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무슬림 여성들의 경우 보통 7명의 아이를 낳고 있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 된다. 성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나이가 많은 이들일수록 불교나 도교 신자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불교 신자 수가 가장 많았고, 개신교의 경우는 예배 장소가 가장 많았다.

F. 그레함, "무지개 조명 킥 백악관 하나님께서 치실 것"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축하하기 위해 무지개 조명을 킥 백악관을 번개로 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함 목사는 "불과 3년 전만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지지하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뻔뻔스럽게 백악관에 무지개 조명을 밝힘으로 백악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교만함을 과시하는 최악된 행동"이라며 "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백악관의 지붕에 추가 피뢰침을 설치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본인도 그것을 아마도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함 목사는 지난주에도 백악관이 무지개 조명을 밝힌 것에 대해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따귀를 때리는 모욕적인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LGBT)의 상징인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함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시시피주 법원 서기 린다 바네트(Linda Barnett)의 이야기도 올렸다. 24년 동안 법원 서기로 일해왔던 바네트는 지난 주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레함 목사는 "24년 동안 미시시피주 법원 서기로 일해 왔던 바네트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직업과 신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신앙을 택했다"고 전했다.

"기독교로스를, 동성애 반대학칙 안바꾸면 인가 취소"

캐나다의 한 법원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학칙을 가진 기독교 로스쿨에 대해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온타리오 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의 재판관 3명은 지난주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Trinity Western University)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대학은 지난 2014년 4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에 소재한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인 이 대학에 대한 인가를 취소한 어퍼캐나다법률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학칙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의 거룩함을 깨뜨

리는 성적 친밀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칙상 동성애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학칙에 따르면 학교의 사명, 핵심가치, 커리큘럼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성경에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 혐대, 비방, 저속/음란 언어, 도둑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의 오용 또는 파괴, 음주, 미성년자의 음주, 불법 약물 소지나 사용 등을 금한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학칙이 트리니티웨스턴 대학의 로스쿨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서 특정인들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차별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만 인정된 것.

한편, 트리니티웨스턴 재단이 인가가 취소돼 법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온타리오 주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노바 스코티아 고등법원(Nova Scotia Supreme Court)이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이 노바 스코티아 법률협회(Nova Scotia Barristers' Societ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단 측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제이미 캠벨(Jamie S. Campbell)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협회가 트리니티웨스턴 대학과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이다.

'IS, 이스라엘 기독교인 청소년'에 긴장

이슬람국가(IS)가 최근 이슬람 금식 절기인 라마단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 한국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의 소행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독교인 '청소년'은 지난달 말 예루살렘 북부에서 IS 로고가 들어간 전단지(사건)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 등은 지난달 28일 "시온주의자들이 무슬림에게 이슬람을 버릴 것을 요구하며 악을 퍼뜨리고 있다"며 "라마단이 끝나는 날(18일)까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경우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전단지에는 성본교 교회(무명교회)를 비롯해 예루살렘 구시가지인 베이트 하니나, 슈야파트 등 무슬림 거주지도 언급, 아랍 기독교인을 색출할 것이라고 돼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까지 테러와 관련된 어떠한 징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지인들은 지난달 중순 발생한 오병이어교회 방화 사건에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

이스라엘 신문 '하아레츠'는 지난 1일 정교회 아탈라 한나 주교의 말을 인용,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단지는) 오병이어교회 사건을 따돌리려는 시도도 보인다"고 보도했다. 성지순례지로 유명한 오병이어교회는 지난달 18일 누군가의 방화로 내부 장식물과 지붕 등이 불탔다. 범인은 극단주의 유대인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IS 이름을 이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12일, "극단주의 유대인들은 과거에도 교회와 모스크를 훼손했다"고 보도했다.

(4면에서 계속)

믿음이란 기대가 있을 때 활동합니다. 기대를 저버리고 난 다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결코 그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기대가 있을 때 일할 의욕이 생기고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기대가 없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쉽게 무릎 꿇고 맙니다. 그러나 뜨거운 기대가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 환상을 가득히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환상을 주시기를 위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가로와 세로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러므로 환상을 가득 품고 이것을 종횡으로 살펴보고 기도하며 전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에 포로가 되면 부정적이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소극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이 아닌,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닌,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의심과 근심의 구름이 있는 곳이 아닌 영원한

복락과 즐거움 노래가 있는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험하고 어두움이 있는 곳이 아닌, 빛과 사랑이 있는 곳 또한 빛나고 높은 저 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찬송가 543장의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익숙 여사께서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일본 앞잡이의 총칼 밑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부른 찬송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부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는 법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는 법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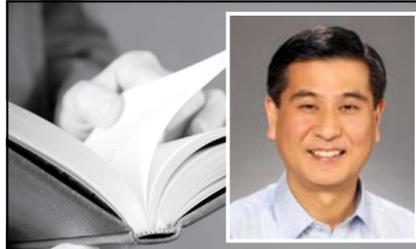
(정요한 목사 설교집 '나의 비전, 나의 미래' 중 발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부터 저 높은

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는 법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요한 목사 설교집 '나의 비전, 나의 미래' 중 발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부터 저 높은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7)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부 (10) 변증 교부, 히폴리투스

위조지폐를 분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이 무엇일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가짜 지폐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교육하는 것일까? 아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진짜 화폐와 친숙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라고 한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히폴리투스(Hippolytus)는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235년에 순교한 교부였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하며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던 로마제국의 수도였다. 지금도 '세계의 머리'라는 별명을 지닐 수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다른 종교와의 대화와 공존을 중요시하는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와 다른 자들에 대한 연구보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의 관점을 지닌 이단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질문: 초대 교회의 초기 변증 교부들은 이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하였을까?

1)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도시였다. 로마를 통해 세계의 복음화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였던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열정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로마는 향후 로마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만일 로마가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다면, 로마를 정복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초기 로마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매사에 뒤떨어져 있었다. 헬라철학과 이단의 출현으로 인하여 사도들의 신앙이 순조롭게 계승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로마교회 교회의 자질도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부, 히폴리투스가 등장하였다. 역사학자 필립 샤프는 히폴리투스를 '로마교회 최초의 대학자'라고 칭한다. 로마교회에서 그의 역할이 그만큼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히폴리투스라는 인물을 두고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의 해석이 사뭇 다르다. 개신교는 그를 엄격한 교리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훌륭한 변증적 교부로 이해한다. 반대로 로마가톨릭은 그를 도전적인 성격을 지닌 분

리주의자로 단정하고 오랜 세월동안 잊어왔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가톨릭은 히폴리투스를 '대립교황(對立敎皇, antipapa)의 원조로 여긴다. 대립교황이란, 교회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황좌에 오른 인물을 가리킨다. 3세기 초 로마교회가 분열되어 두 교황

에 맞서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

■ 이단 논박

히폴리투스는 많은 작품을 기록한 훌륭한 저술가였다. 그는 교회가 걸어온 역사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려하였는데 성경을 주석한 글과, 우주론, 성령의 은사, 그

리고 적그리스도 등 매우 다양한 주제의 글을 기록하였다. 그는 또한 "모든 이단에 대한 논박"이란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을 종합적으로 나열하고 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도 자신의 스승 이레니우스(Iraeneus)와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를 비판하였는데, 그 체계에 담겨져 있는 이단 교리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비판하였다.

"모든 이단에 대한 논박"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5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히폴리투스는 모두 32개의 이단을 열거하며 로마교회를 포함한 성도들을 위협하는 헬라철학과 신화론, 점성술 등이 결국 영

논박, 5권 1장). 히폴리투스는 이레니우스와 마찬가지로, 로고스 개념을 중심으로 영지주의에 대하여 변증한다. "로고스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 세상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중략) 하나님께서는 전이나 지금이나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다"(이단 논박, 10권 29장). 히폴리투스는 이단을 소개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그의 변증과 과정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려는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 황제 논박

히폴리투스의 논문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톨릭은 그의 변증을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다. 물론 그의 글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교회가 곧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들은 도리어 히폴리투스가 "사도전승"이란 책을 기록한 것을 1550년대에 발견하였다며, 이 글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성례와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삼고 있다. 물론 저자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100% 이 글이 히폴리투스의 것이라고 확신한다.

(8면으로 계속)

로마교회 첫 대학자로 로고스 개념 중심으로 영지주의에 대항해 변증 이단공격보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진리수호가 궁극적 목적

가정사역 칼럼

이혼 및 재혼의 여러 성경적인 사례들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1)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의 화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고멜은 바람기가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호세아 선지자가 집을 비운 사이 외간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린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지불하라고도 집 나간 아내를 되찾아 오라고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따라 여러 번 아내를 되찾아온다. 그러는 가운데 고멜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의 자식인지 모를 아이들을 낳기도 한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녀들의 이름을 '로암미'(내 자식이 아님), 혹은 '로루하마'(사랑받지 못함)라고 짓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지만 호세아는 자신의 삶이 너무 기쁘다하며 탄식을

하게 된다. 그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신의 심정을 내비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지만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호세아가 사명을 위해 거리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을 쫓아다니는 숙명적 삶을 살게 된 것은, 일견 매우 기박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통해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남편을 죽인 배신자를 품은 사랑

성경에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두 개의 사랑이

이야기 나온다. 하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밧세바의 이야기이다. 두 사람 모두 유부녀로 있다가 후일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아비가일은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다가 남편 사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밧세바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아비가일은 슬기로운 여인으로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가문이 멸족할 위기에 처하자 지혜롭게 처신하여 가문을 구하고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의 적이었던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가 되었다(삼상25장 참고).

밧세바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으로 다윗의 충성스런 신하 우리아의 부인이었으나 다윗의 눈에 띄어 사통한 뒤 임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임신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부인과 동침시키려 했으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부인과 동침을 거부하고 전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윗의 계략에 걸려 죽임을 당하고 만다. 자신으로 인해 졸지에 남편의 목숨을 잃은 밧세바가 비탄에 빠져있을 때, 다윗이 그녀를 궁으로 불러 후비로 삼고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의 분노를 사 곧 잃어버리게 된다(삼하11장 이하 참고).

당시 다윗이 받은 쓰라린 고통과 회개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타나있다. 후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왕이 되며 훗날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잇는다.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망가진 인생의 사랑 가운데서도 단순한 부부관계 이상으로 사랑을 위한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3) 신앙적인 문제로 부부가 결혼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이런 경우 이혼하고

로 살든지, 혹은 이혼한 뒤에 상담을 통해 재결합하라는 것이다.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혼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전7:11).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전제한 뒤, 비록 신앙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안 믿는 쪽에서 원한다면 받아주고 함께 살면서 영적인 삶의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함을 피력하였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나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나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고전7:12-14).

그는 또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

다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이혼을 선택했다면 다시 재혼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으나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으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전7:27).

앞에서 이야기된 이혼이 허락되는 두 경우의 명백한 공통점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이 깨어진다는 것이며,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와 헤어진 뒤 일정기간 후에 재혼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독신가정 Single Family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이혼으로 인한 수치심을 더 많이 느낀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인 이혼자들은 더 은폐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우리사회나 문화가 폐쇄적이고 전통적인 면이 강하고, 수치심이 기만 된 문화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전통적인 이혼제도가 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 오전 9:30-오후 8:00

- ◆ 기독교서적
- ◆ 기독교용품
- ◆ 일반서적
- ◆ 서예용품 전문
- ◆ 2016년 달력제작

CJ택배 **ups**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개인 없다.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조직과 공동체도 없다. 겉손으로 위장하고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실 된 자세이다. 진리와 양심이 깃뻛히다면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진리를 세우고 양심을 지켜야 한다. 진리와 양심 그것만이 싸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

자기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반목하며 싸우게 된다. 이런 것은 기도할 문제이지 싸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싸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문제이다. 겉손을 가장하여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의롭게 부각시키려는 자리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5)

기도는 우리의 본업이요 우리만의 특권이다(하)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이 열리며 착고가 벗겨졌다”(행 16:25-26)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원망과 섭섭함을 기도로 다스리며 이겨냈기 때문이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니 착고가 풀렸다.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참 기도이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방법은 서

라. 기도를 통한 교제와 하나님의 응답은 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요, 구원의 소식이며, 행복의 비결이요, 영생하는 양식이다(요6:53-58).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

와 인도를 받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다.

성도들은 세상에 다시 없는 하늘의 신령한 백성들과 교제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죄인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필요한 시간과 물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으며,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늘 군대에 복무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특권은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사단의 공격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의 날이 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다. 또한 시몬 베드로에게는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하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눅22:31-

정죄와 비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기도생활 게을리 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 받아

에서 단호히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빌2:3-5).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

바울과 실라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묶인 채 옥에 가두어졌다. 이쯤 되면 인간의 마음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원망의 마음이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좌절이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문

로 활짝 열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더 빠름을 깨달아야 한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없게 산다고 생각한다. 즐거움도 특권도 포기하고 재미가 없어 어떻게 사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정말 예수 믿는 참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만큼 특권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눈을 밝게 하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금 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특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사19:7-10).

최악으로 영원한 불 못을 면치 못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세상이 주는 일시적 평안이 아닌(요 14:27),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보호

34)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받은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고(마26:69-74),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고 목을 매 자살했다(마27:3-5).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의 특권을 등한시 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백지수표를 버리는 것과 같고, 거대한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를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기도는 우리의 본업이요, 특권이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정행복학교 마지막 모임은 감동 그 자체였다. 주일 저녁 예배 후 다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장작 5시간을 걸쳐 가진 모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열싸안고 "나 같은 사람만나 당신 너무 고생하고..." 말을 잊지 못하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흐느껴 우는 눈물물 속에 아픔과 진실을 보았다.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단어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서로 악약거리고 의심하고 아파하고...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아줄 수 있지만 자기 가정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려하나...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란 다.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 겨우 3-4명으로 엮어진 내 가족, 그들은 서로 닮았다. 코드 눈도 말하는 것도 닮았고 걷는 것도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심지어는 병도 닮아서 같은 병을 앓는 다는데.. 이렇게 몇 안되는 나를 닮은 가족 속에서도 조화롭지 못해 서로 '너 때문에'라고 까닭을 찾고 생계를 내고 조금만 더 섬겨달라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목청을 높이는 우리네들...

어느 지혜로운 아내는 겨울옷을 정리하면서 남편 양복주머니에 100불짜리 돈을 하나 넣어서 가방 안에 겨울옷을 챙겨 넣었다고 한다. 남편이 다시 겨울옷을 꺼내 입을 때 그가 그 주머니에서 100불짜리를 발견하면서 어? 내가 언제 이런 큰돈을 넣어놨지? 하고 흥재했다고 너무나 좋아할 것을 상상하며 그 아내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글이다. "응급처치법을 아세요?" "당신을 보니 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피곤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내 마음속을 헤매고 다니시느라..." "아버님이 도둑이셨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훔쳐갔어요?" "목사님, 어제 꿈에 예수님 만나셨어요?" "내 평생에 그런 설교는 처음 들었습니다."

와! 이런 보석 같은 말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려면 주위의 사람들을 아절하게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행복천사가 되기에 충분하리라.

남자들보다 언어적 능력이 좀 더 발달한 여자들은 언어로 자극을 받아야만 수공이 간다. 여자들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갖고 마음의 간격을 좁혀간다. 그래서 누군가와 수다를 즐긴다는 것은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리라.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싸워도 보고 안 되면 소송까지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보는데 정작 관계가 서원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별로 애써보지도 않고 내버려둔다.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애쓰고 참고 견디며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진짜 질긴 인연인데...

어떤 노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그 아이를 계속 찾아 헤맸는데 우리가 찾는 행복이 아마 이 같을 지도 모른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파랗고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 것처럼 까맣게 잊고 지낸다. 그러다가 마음이 불편해져야 하늘의 고마움을 깨달으며 정말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간다.

매일 대하는 바람과 공기, 교회, 매일 보는 가족의 얼굴,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들...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또 내일도 만나겠지만 그래도 안보면 못 살 것 같은, 하늘이 내 곁에 준 사람들... 그들의 기쁨과 슬픔, 고통까지라도 싸우며 그들과 맺은 인연이 후회스럽지 않게, 그리고 나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고백을 들을 때까지 죽도록 사랑만 하리라.

한 여름의 진초록과 파란 하늘이 겹쳐지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요즘, 있는 힘을 다해 주고 또 주고, 받고 또 받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고 또 받았는지 분간이 가지 않는 '좋은 사람'들 속에서 '조화롭음'을 만끽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소서.

(7면에서 계속)

에 로마가톨릭은 히폴리투스의 "모든 이단에 대한 논박"을 일찍 감추었을까? 이 책의 9권에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이다. 우리는 그 당시 로마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교황과 관련된 사건을 접하게 된다. 그 당시 로마교회의 교황은 제피리누스(Zephyrinus)였다. 히폴리투스는 교황이 양태론자(성부와 성자가 동일주체라고 믿으므로 삼위일체를 부정함)임을 주장하며 공격하였다. 그런데 그가 노예 출신으로 지나치게 세속적이며 교활한 제피리누스(Callistus)에게 교황 자리를 계승시켰다. 무엇보다 그는 신학적으로도 정통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인물이었다.

히폴리투스는 제피리누스의 과거와 그의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인신 공격성의 내용을 여과 없이 길게 서

술하였다.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전 교황과 현 교황이 합작하여 교회를 바르지 못한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제피리누스의 영향력에 대하여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커다란 당을 짓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제피리누스 당의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이단 논박, 9권 7장). 결국 그는 상대를 로마교회의 교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교황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비록 두 교황은 동시에 체포되었으며, 같은 날 순교를 당하였다. 유배지에서 그들은 화해를 했고, 이 사건으로 교회의 분열이 끝나게 되었다.

교황을 절대시 하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이런 내용의 글과 사건을 감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에서는 그의 사적인

동기보다, 주로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진리를 변증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교황에게 바른 말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는 강직한 성격을 지녔던 엄격주의자였다.

2) 성경이 보인다 - 베드로전서 2:1-3, 2:10-22; 골로새서 2

초대교회에 나타나 성도들을 크게 현혹시키며,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며 놓았던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성경말씀대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활동이 더욱 노골적이며 담대해지고 있다. 전에는 숨어서 진리를 휘방하던 세력이 지금은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으로 이상하다. 조금만 들어보고 읽어봐도 마치 공상 소설을 읽는

듯 우스꽝스러운 이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 뿐인가?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어보지 못했던 식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신기하다며 쉽게 바른 길을 벗어나는 성도들도 있다. 암흑으로 가득 찬 이 시대이다. 마치 가짜 지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원수 마귀의 전략도 성도들의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성경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진리에 서는 것이다. 상대의 공격을 의식하면 할수록 더욱 진리에 서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2015년 7월 6일(월) ~ 16일(목)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조성근 목사

gstcenter98@gmail.com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검색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경사예배 1~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13일 (함동동인선교회 남부시절 재지부총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춘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성령수련회(김지연총장) 9~11일 (함동태백시찰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1일 예우교회(류병희목사) 22~24일 남수원교회 교사강습회(함동) 25~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천마산기도원(윤광석목사)	3~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12일 나사렛성경교단 연합성회(장소: 나사렛대학교) 17~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장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1~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목회서신

입 조심, 말 조심

(입은 화(禍), 복(福)이 들락거리는 문)

입(口)이란 무엇인가? 입은 음식물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을 통해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십니다.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야 사람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따져보면, 땅(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물이란 땅의 지기(地氣)를 받고 자란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입은 지기(地氣)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기(天氣)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 코(鼻)입니다. 사람은 코를 통해서 산소를 흡입합니다. 산소는 바로 천기가 아닌, 천기를 흡입 하는 코와 지기(地氣)를 섭취하는 입의 사이에 있는 부위가 바로 인중(人中)입니다. 사람의 가운데단 뜻이다. 이 부위가 인중(人中)이라는 이름이 된 이유는 천기와 지기의 중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중 위쪽으로는 구멍이 2개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기(天氣)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 코(鼻)입니다. 사람은 코를 통해서 산소를 흡입합니다. 산소는 바로 천기가 아닌, 천기를 흡입 하는 코와 지기(地氣)를 섭취하는 입의 사이에 있는 부위가 바로 인중(人中)입니다. 사람의 가운데단 뜻이다. 이 부위가 인중(人中)이라는 이름이 된 이유는 천기와 지기의 중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중 위쪽으로는 구멍이 2개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기(天氣)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 코(鼻)입니다. 사람은 코를 통해서 산소를 흡입합니다. 산소는 바로 천기가 아닌, 천기를 흡입 하는 코와 지기(地氣)를 섭취하는 입의 사이에 있는 부위가 바로 인중(人中)입니다. 사람의 가운데단 뜻이다. 이 부위가 인중(人中)이라는 이름이 된 이유는 천기와 지기의 중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중 위쪽으로는 구멍이 2개씩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하고, 1개는 아껴쓰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중을 중심으로 위로는 음이 아래로는 양이 배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입의 위치를 다시 살펴보면, 인중 아래로 양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인체의 양은 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만사가 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에서 먹은 것과 복(福)도 들어오지만 화(禍)도 들락거리는 문(門)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입은 화(禍)가 들어오는 문(門)이라는 뜻으로, 전당서(全唐書) 설시편(舌詩篇)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나라가 망한 뒤의 후당(後唐) 때에 임신하여 재상을 지낸 풍도(馮道)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조팔성십일군(五朝八姓十一君)을 섬겼는데, 다섯 왕조에 걸쳐, 여덟 개의 성을 가진, 열한 명의 임금을 섬겼다는 말이니 그야말로

처세에 능한 달인이었습니다. 풍도는 인생살이가 입이 화근임을 깨닫고 73세의 장수를 누리는 동안 입 조심하고 혀를 감추고 말조심을 처세의 근본으로 삼았기에 난세에도 영달을 거듭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입과 혀, 말조심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시13:3)고 했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시18:21)고 했으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3:8)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키소서"(시141:3)라고 간구했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아끼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입에 자갈을 넣으라"(약3:3)고 권면하셨습니다.

입술의 절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민14:28)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이 자기 목을 걸고 맹세하며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단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모든 갈등과 문제의 발단은 입과 혀에서 비롯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성령의 통제 하에 입에 자갈을 넣고, 혀를 감추고, 입조심, 말조심 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칭찬과 축복의 말, 긍정적인 신약적인 말만 합시다.



라크마 주최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가 '한국의 얼'이란 주제로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하나님 이야기 할 수 있어 감사..." 광복70주년 기념음악회 '한국의 얼'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가 11일 오후 7시30분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한국의 얼'이란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라크마(LAKMA 단장 최승호) 주최로 열린 음악회는 라크마 콰이어와 오케스트라(지휘 윤희상) 교수가 출연해 서주, 독립투사들 그리고 민족 시인과의 만남, 그리고 태극기를 불렀다. 특히 영엔젤스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웅장함이 깃든 코리아판타지와 태극기를 불러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고려오페라 단장 겸 지휘자 이기훈 교수의 지휘로 연주된 독립투사들 그리고 민족시인과의 만남 섹션에서 소프라노 김영안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이 땅에 아름다움 주시고'를 테너 오우영이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 곡을 붙인 '함께 쓰여진 시', '서시', '특별히 이날 음악회는 영어권 음악인들이 함께해서 눈길을 끌었다.

매조 소프라노 에린 머피가 순양원 목사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한반도'를, 테너 아문도 카스틸로가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한 '금강산아, 낙동강'을 불렀으며 소프라노 코릴 프로크노우가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을 불렀다. 이날 '역경을 딛고'라는 주제의 섹션에서는 갑상선암의 역경을 이긴 테너 배재철 교수(한양대학교)가 '선구자', '청산에 살리라', '아리랑'을 불렀으며 배 교수와 같은 갑상선암의 힘든 과정을 겪은 바 있는 소프라노 신선미가 E Strano from Opera 'La Traviata'를 불렀다.

또한 배재철 교수와 신선미가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Time to say Goodbye'를 불러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마친 후 배재철 교수는 "광복 70주년 음악회에 참여해 미국에 계신 분들과 교감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은혜로 무대에 서게 된 것이 더욱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기념 가수회의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무대는 그야말로 감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LA바이블컨퍼런스가 채프만대학교에서 열렸다

창, 출, 요, 행, 계 권당 3시간씩 진행 2015 LA 바이블 컨퍼런스 성료

2015 LA 바이블 컨퍼런스(Bible Conference, LABC)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요6:68)'라는 주제로 채프만 대학에서 열렸다. LABC는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한 권당 3시간씩의 세미나로 진행됐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말씀사경회로 138명이 참석했고 연장자부터 2살짜리 어린아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20여 명의 소그룹으로 나눠 강의에 참여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5권의 성경을 가지고 킷스 바이블 컨퍼런스가 함께 열렸다. 강사로는 주제홍 목사(90일성경일독본통독)가 창세기

를, 셸리안 선교사(에스라-헤미야 성경연구원)가 출애굽기를, 김경환 목사(실크로드교회)가 요한복음을, 지용주 목사(뉴욕 시라큐스한인교회)가 사도행전을, 그리고 김성환 목사(가디너장로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맡아 세미나를 인도했다. 개회예배는 오경환 목사(연약교회)가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금요기도회는 정기정 목사(샘물교회)가 '지성소에 진동하는 기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폐회예배는 강순영 목사(JAMA)가 '다니엘 세대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LABC는 38개 교회에서 138명이 참가했으며 뉴욕과 포틀랜드에서도 함께 자리를 했다. 9년 전 뉴욕업스테이트에서 시작된 뉴욕 바이블 컨퍼런스를 따라 열린 LABC는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올해 시작됐고 내년에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빛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요8:12)'라는 주제로 채프만 대학에서 열리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labileconference.org를 통해 볼 수 있다. (기사제공: LA Bible Conference)

남부개혁신학대학원 여름집중강의 지도력이양 상황화, 성경해석법, 논문진척 등

남부개혁신학대학원(LA President Dr John H Kim) 김회창 박사는 문화소통학(D.Ics) 선교학

(D.Miss) 목회학(D.Min) 박사과정 2015 여름 집중강의가 지난 28일부터 7월 4일까지 개최됐다.

LA 캠퍼스(2975 워싱턴 630호실) 강의실에서 △지도력이양 상황화 △성경해석법 △논문진척 1, 2 강의를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로 실시했다. 한국교회의 성장의 최대의 이유로 부상한 '지도력 이양 상황화' 과목은 한인사회에 지도력 문제의 중앙에서 많은 일들을 겪은 동양선교

교회와 월드미션대학교를 이해해준 임동선 박사, 유니온교회와 미주성결대학교를 이해해준 이정근 박사, 태국선교사를 이해해준 이영기 선교사 등이 먼저 실제로 겪은 일들을 전했다. 이어 사역 상황화는 풀러신학교에서 수학한 이방석 박사(Moses Lee)가, 지도력 이양 상황화는 그레

이스에서 수학한 김회창 박사(John H Kim)가 강의했다. 또한 논문 진척을 위한 성경해석을 달라스에서 수학한 김수영 박사가 인도했고, 논문진척 1 과정인 프로젝트 작성과 논문 진척은 풀러에서 수학한 이영기 박사가, 사회조사 방법론과 논문진척 2 과정인 논문 만들기는 김회창 박사가 강의해 학

생들이 실제적으로 논문을 창작하도록 했으며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쓰기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본교의 특징임을 강조했다. 남부개혁신학대학원대원은 학, 석사 과정은 현재 여름학기 수업중이던 언젠게진 학생들의 편입학이 장학금을 받으며 가능하다. ▲연락처: (213)268-9367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church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동부(NY, NJ)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sections.

동부교계 게시판



UMC 한인총회 40년사 자료 수집

연합감리교(UMC) 한인총회가 '한인총회 40년사' 발간을 앞두고 과거 역사자료를 찾고 있다. 초기 자료들은 자료 보관이 미비하고 분실되는 등 부족한 것이 많고, 특히 1-12대까지 자료가 부족하며 과거 전국연합회의 장소, 일시, 주제, 사역내용 등의 제보를 바라고 있다. 또 개인 원고도 이메일로 받고 있다.

40년사 편찬은 출판위원회 한상식 목사를 비롯, 최희덕 목사(동북부), 정성호 목사(동남부), 황현영 목사(중북부), 엄준노 목사(중남부), 홍삼열 목사, 송계열 목사(서부) 등이 편집위원을 담당하며 한세희 목사, 장학순 목사, 안병훈 목사 등이 분야별로 참여한다.

▲문의: gumck@hot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8월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8월 세미나가 라흥채 목사(뉴욕제자들과 회 담임)를 강사로 달라스와 휴스턴에서 열린다. 일정은 8월 4일(화) 오후 2시30분-8시, 달라스 수라레스토링 6일(목) 오전 11시-오후 5시, 휴스턴 서울가든. 회비는 없으며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972)243-5656, (713)935-9696

온두라스 선교디너의 밤

온두라스 단기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 디너의 밤이 오는 26일(주) 저녁 6시 에버그린장로교회(담임 문덕연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선교디너에는 One Soul Fellowship 설립수 집사가 이끄는 재즈밴드 공연이 있다. 티켓은 30달러.

이번 단기선교는 "예배의 삶"이라는 주제로 장소는 인터내셔널크리스천스쿨(황종렬, 황명옥 선교사)이며 선교내용은 하계영 여성경 캠프이다. 참가인원 21명, 기간은 8월 17-22일.

▲문의: (718)757-1142, (917)774-7994

지휘자 청빙

아틀란타 소재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에서 지휘자를 청빙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성악이나 지휘를 전공한 경험자로 신청 마감은 7월 31일. 신앙고백서, 이력서(가족사항 포함), 추천서 2통(목회자 1인 포함)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saehan-preaching@gmail.com).

▲문의: (770)619-5340, (678)984-0840

교회 사무간사 구함

뉴저지 한소망장로교회에서 풀타임 사무간사를 구한다. 세례교인으로서 컴퓨터와 워드에 능숙하며 믿음과 사명으로 교회 사무행정 업무를 담당해줄 간사를 찾고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월-주일, 화-휴무).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1통을 보내면 된다(hunly2004@gmail.com)

▲문의: (201)801-9100, (704)307-5443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기 추모예배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김남수 목사)가 주최하는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기 추모예배가 7월 22일(수) 오전 11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방지각 목사(자문위원).

▲문의: (718)321-7800

PCA-CKC 남부노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PCA한인(PCA-CKC) 남부노회가 주관하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오는 26일과 27일 윌밍턴 임파뉴엘한인장로교회(담임 신동민 목사)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는 살롱한인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 대학청년부가 동행하게 돼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704)529-0900

“마지막 때 한인교회 역할과 책임”

미기총 제17회 정총, 신임회장에 최낙신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이하 미기총) 제17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아틀란타 잔스크리한인교회(담임 이승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마지막 때 한인교회 역할과 책임”이란 주제로 미주 지역과 한국, 일본에서 약 120여 명의 교계지도자가 참석했다.

개회예배에서는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의 사회로 기도 전영현 목사(동부지역 공동회장), 내빈소개 김동욱 목사(상임회장), 특송 아틀란타 지역 목회자부부찬양단 Klesis Choir, 축사는 김요셉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영상), 이재덕 목사(뉴욕교회 협회장), 김기동 목사(LA 오렌지카운티교회 협회장)가 맡았고, 격려사는 장석진 목사(세기총 직전대표회장), 박희소 목사(미기총 총대회장), 이상렬 목사(일본 한국선교사협의회 회장)가 전했다.

이어 원종문 목사(세기총 상임회장)가 이사가야 55:3 성경봉독 후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가 “지도자가 들어야 할 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 목사는 “영적 지도자는 양심의 소리, 역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어두운 현실에서



미기총 제17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한인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중 목사(서기)의 광고에 이어 임형태 목사(직전 대표회장)이 축도함으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둘째 날 총회에서는 최낙신 목사(잔스크리한인교회 원로)가 대표회장에 뽑혔다. 그는 미주 4500여 한인교회에 영적 부흥과 동성애문제에 강하게 대처하기 위해 작년 회기 중 한기총 대표회장이 전개한 회계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국적으로 약

속했다.

지난 1년간 회장으로 섬긴 한기홍 목사는 특별히 미기총의 전국적 연합과 기도 운동에 헌신한 바 있다. 그는 JAMA와 함께 “도시와 미국의 부흥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기 도성회”를 미주 내 7개 도시에서 열며 전국의 한인교회들을 기도로 연합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이 기도운동을 계속 전개하기로 하며, 20주년을 3년 앞두고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미연방 대법원이 최근 결정한 동성애 문제를 항의하는 선언서가 채택됐다.

선언서는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천명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한 연방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동성애자들을 선도하고 치유하는데 앞장서기를 촉구하며 △성경적 가정관과 결혼관이 미국사회 안에서 보존되도록 교육하며, 기도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진 세미나는 피종진 목사(해외합동총회 총회장), 양병희 목사, 김요셉 목사, 장석진 목사를 강사로 진행됐으며, 저녁성회는 한기홍 목사가 인도했다.

제 17회기에 선출된 임직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GA) △상임회장: 황경일 목사(NY) △지역공동회장: 동부-전영현 목사(수석, PA), 서부-박용덕 목사(CA), 중부-심평중 목사(OK), 남부-김동욱 목사(NC) △사무총장: 이대우 목사(PA) △총무: 장석진 목사(GA) △서기: 김기동 목사(CA) △부서기: 나성근 목사(NC) △회계: 박동배 목사(PA) △부회계: 양춘길 목사(NJ) △감사: 임형태 목사(CO), 박상욱 장로(PA)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 윤사무엘 목사(NJ), 총무 임형태 목사(CO), 서기 박병섭 목사(SD, CA) ▲전국기도연대위원회: 대표 한기홍 목사(CA), 사무총장 임형태 목사(CO), 서기 박형우 목사(NC).

미기총의 17회기 사업계획은 (1) 전국 순회 기도운동(동성애 확산 금지, 회개운동) (2)2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3)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 교회와 네트워킹 (4)각 교단 실무단과 접촉 교제하며 교단별 회원 가입 독려 (5)각 분과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 실시, 협조 등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성서건강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암과 면역”, “성경적 건강” 강의 뉴욕목사회, 황성주박사의 '성서건강세미나' 개최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 세미나'가 뉴욕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 주관으로 평신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총무 김연규 목사 사회

로 김희복 목사 기도 후 △건강을 위해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해 △동일한 한국을 위해 합심기도 한 후 시작됐다.

강의에 앞서 이만호 목사는 “오는 9월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기도회를 앞두고 매주 월요일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오늘 황성주 박사 세미나와 함께 하게 됐다”고 밝히고 황성주 박사는 “나라사랑, 자연사랑, 이웃사랑에 헌신하는 분”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라 특별히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강사소개를 했다.

이날 황성주 박사(사망의병원 원장)는 △암과 면역 △성경적 건강에 대해 강의에서 “암은 유전적 요소는 6%뿐이며 스트레스와 모든 환경-음식, 생활, 습관 등의 영향으로 생긴다”며, “수술 후 뿌리가 남아있는 한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면역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암에 걸리지 않는 삶으로 시스템 전환이 중요하다.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 상실, 영양실조 등으로 죽게 됨으로 치료의 주도권을 의사에게 맡기지 말고 환자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암제는 별 효과가 없다. 원인을 제거하고 결과처리, 면역강화를 해야 하는데 복합치료로 식생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암유전자 검사, 체온 유지 등으로 암 발생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암에 걸리면 흔히 하나님께 왜 내게 질병을 주시는가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원리가 있다(갈6:6-7)”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먹고 건강의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황경일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서노회 임시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서노회 김상근 목사 면직 제76회 4차 임시노회, 새 노회장에 이춘호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 제76회 4차 임시노회가 지난 7월 7일 오전 10시30분 총회 주관으로 뉴욕천성장로교회(담임 이승원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노회는 총회 결의를 불순종하고 교단을 탈퇴한 김상근 목사를 면직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영수 총회장은 “든든한교회 문제로 인해 오랜 동안 성노회가 몸살을 앓고 힘이 부족해, 결국 총회가 개입해 문제를 잘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김상근 목사가 타 교단으로 가서 안타까움이 있다. 간 분은 간 분이고 힘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무엇보다 건강한 노회가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노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임원선출은 김영수 총회장, 고택원 부총회장, 공재남 총무, 수습위원들, 서노회 전임노회장 등이 모여 공정한 결과 노회장과 부노회장만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유임됐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춘호 목사 △부회장: 이승원 목사 △서기: 이종태 목사 △부서기: 강항원 목사 △회록서기: 정관호 목사 △회록부서기: 이영우 목사 △회계: 최완진 장로 △부회계: 한병연 장로.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된 이춘호 목사는 “그동안 뉴욕서노회는 든든한교회 문제로 앞둔 오랜 기간 아픔을 겪어왔다. 여러 일들을 거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제 39차 총회에서 서로 화합하기로 결의했으나, 김상근 씨가 교단을 탈퇴함으로 또 다시 어려움이 생겼다”며 “모양

으로는 하나가 된 뉴욕서노회 안에서 너무 오랜 기간 서로 소원한 관계에 있었기에,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간에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숫자만큼이나 많은 생각들이 모든 회원에게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교계에 그리고 뉴욕 이민사회에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노회가 아니라, 교계에 모범이 되고 이민 사회에 덕을 끼치는 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회의에 앞서드린 개회예배는 조성희 목사(수습위원장)의 인도로 공재남 목사(총회 총무)의 기도에서 이어 순환권 목사(수습위원회 서기)가 성경봉독을 하고 총회장 김영수 목사가 “시작도 아름답게 끝은 더 아름답게”(역대하26: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강기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영수 총회장은 “목회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는 목사가 20%가 안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이다. 실패의 원인은 교만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주장이 관철이 안되면 끝까지 문제 삼으면 안된다”며, “교회가 어려우면 40일도 금식하고 없더라도 기도하지만 노회를 위해서 단 한번이라도 금식한 분이 있는가? 단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끝이 더 아름다운 뉴욕서노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목사 청빙

- 목사 및 부교역자
- 사명감 있는 청년
- 자 격
 - 1) 장로교단에서 사역, 경험 있는 분
 - 2)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이 투철한 분
 - 3)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4) 운전 경험이 있고 운전가능한 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첨부) 1통
 - 2) 자기소개서 1통
 - 3)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1통
 - 4) 목사 안수 증명서 1통
 - 5) 주민등록 등본 1통
- 제출마감 2015년 7월 31일까지 제출 요망
- 기타사항
 - 1) 우편접수 가능(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2) 1차 선임되시는 분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3) U.S.A 또는 CANADA 거주자 환영
- 제 출 처 192-24 64 Circle #2B Fresh Meadows NY 11365
뉴욕서울장로교회 한문수 목사 (718)423-0343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욕 서울 장로교회

목사 청빙 위원회

“타민족에도 사랑과 비전 나누기”

OC교협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 실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는 9일 오전 10시30분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를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실시했다.

김기동 목사는 “사랑의 라면 행사에 타민족 지도자들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작년에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때 남은 비용으로 사랑의 라면 행사를 가졌다. 올해는 부활절 예배 때 타민족을 위한 헌금을 모았으며 이를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라면은 어려움의 상징이자 사랑의 상징이다.



OC교협 주최 사랑의라면 나눔행사가 미주비전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랑과 비전을 나누며 나아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교협 수석부회장 민승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사랑의 라면 나눔 행

사는 김기동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인디언교회, 일본인교회, 베트남인교회 등 타민족 교계지도자들의 인사로 진행됐다.

사랑의 라면 수혜자로는 히스패닉교회, 베트남교회, 인도인교회, 아프리카인 교회, 일본인교회, 멕시코 프리즌 미니스트리, 멕시코 코파데오, 베트남 장애인교회, 홈리스 선교회, 한인시니어센터 등 10곳이다.

한편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 전에 열린 정기임원회는 교협 교육담당 부회장 심상은 목사 사회로 시작, 복지담당부회장 남상국 목사가 대표 기도했으며 영성담당 부회장 이서 목사가 ‘기도와 사역자’(호 1:1-9)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증거회장 박용덕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열매교회 원로목사 추대식 및 2대 담임목사 취임식을 마치고 김요섭 담임 목사 부부와 안국련 원로목사 부부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5 미주감신 여름특별강의에서 오강남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열매교회, 남가주리디머교회 흡수통합

안국련 원로목사 추대 및 김요섭 담임목사 취임예배

열매교회는 안국련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김요섭 목사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12일 오전 11시에 가졌다.

이날 김요섭 목사는 “23년 전 신림동 제일성도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들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며 “15년간 안국련 목사님께서 기도과 사랑과 눈물로 섬겨 오신 열매교회에서 2대 담임목사로 섬기게 됐다. 특히 제가 섬겼던 남가주리디머교회와 하나가 되어 섬기게 됐다. 열매교회 담임목사로 청교도 신앙을 계승시켜 이 민족을 책임지고 전 세계를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랑과 격려로 위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요섭 목사의 사회와 소울워너 찬양단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임진호 장로가 기도, 할렘루야 성가대가 찬양했으며 이정남 목사(KAPC 가주노회 중경노회장)가 ‘세우려 하여’(고후 13:8-10)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설교에 이어 이정남 목사 집례로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담임목사 취임선서 및 취임패 증정을 했

으며, 취임선서를 마친 김요섭 담임목사 집례로 안국련 목사 원로목사 추대식을 가졌다.

추대식은 원로목사 추대패 증정 및 꽃다발 증정, 안국련 목사 성역 발자취 동영상 소개로 이어졌으며 조천일 목사(나성빌라델비아교회 원로)가 축사 및 격려사를, 김희영 집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이인성 목사(멕시코 선교사)의 축도로 마쳤다.

열매교회와 남가주리디머교회 통합예배는 지난 5일 오전 11시에 있었다.

(박준호 기자)

‘종교, 그 표층과 심층’ 주제로

미주감신 2015여름특별강의, 강사 오강남 교수

미주감신대학교(학장 강성도 목사)는 2015 미주감신 여름특별강의를 9일부터 11일까지 평화의교회(담임 김기대 목사)에서 오강남 교수(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종교학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종교, 그 표층과 심층”이라는 주제를 시작한 첫날 강의에서 오강남 교수는 “오늘날 종교, 특히 기독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심각하게 자문하며 종교의 깊숙한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다”고 강의 목적을 설명했다.

오 교수는 “잠된 믿음이란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

의 종이라는 표현은 겸손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속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더 겸손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주의적 해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며, “성경의 말은 그 너머에 있는 속뜻을 알아야 한다. 문자를 강조하는 교단일수록 갈등이 생기며 갈라지는걸 보게 된다. 그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 해석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나 자신이 신이 아닌 이상 나만의 해석을 절대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가나안성도 현상,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기윤실 후원 주제포럼, 발제자 청어람 양희송 대표

“가나안성도 현상,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주제 포럼이 7일 오후 7시 캘리포니아인터내셔널유니버시티(학장 박문규 박사) 강당에서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양희송 대표는 “한국에서 가나안성도(교회를 떠난 크리스천)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자들 역시 가나안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들이 신앙의 뿌리가 얇거나 갈등 등으로 교회에서 탈락하는 현상으로 생각해 잃어버린 양으로 반드시 찾아야 할 영혼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가나안성도들의 특징은 평균 14년 정도 교회출석을 한

자들이다. 이는 교회에서 교사, 성가대 등으로 봉사를 한 성실한 일꾼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들이 교회 주변인으로 있다가 이탈한 것인지 중심에서 성실히 봉사를 하다가 탈락된 것인지를 질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들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의혹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번도 교회를 옮기지 않은 자들이 45.7% 한번 옮긴 자들이 2-30%로 조사됐다. 즉 60%가 습관적으로 옮기지 않은 자라는 것이다. 교회와 가나안성도 간 인식의 격차를 줄이

서부교계 게시판

Seeds of Worship 어린이 선교뮤지컬 정기공연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씨즈 어브 워십’(Seeds of Worship 디렉터 에스더 박) 어린이 선교뮤지컬 팀의 정기공연이 7월 18일(토) 오후 7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린다. ‘This is Living’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기공연 티켓은 10달러.
▲문의: (714)904-8434

엘피스교회 장학생 모집

엘피스교회(담임 박준기 목사)는 2015년 장학금 수여를 위한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남가주 거주 한인 기독교인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GPA 3.0이상)인 2015년 현재 중등학교, 대학(원) 재학 또는 진학예정자다.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1부(본 교회 양식 다운로드), 최근 성적증명서 1부, 에세이 1-2페이지(본 교회 양식 다운로드), 추천서 1부(담임 또는 담당 목사, 본 교회 양식 다운로드), 2014년도 소득세 신고서 1부(2014년 Income Tax Return) 등이다. 신청방법은 본 교회 홈페이지(www.elpischurch.com)→커뮤니티→자유게시판에서 장학금 신청서 및 에세이 양식, 추천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추천서는 추천인이 작성) 다른 서류와 함께 8월 22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9월 13일(주) 오후 12시45분 본 교회당에서 갖는다.
▲문의: (714)284-2854, 253-4767

KWJM 한류선교 찬양콘서트 순회 집회

한국의 G&S 엔터테인먼트(대표 조효성 목사)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KWJM 한류선교 찬양콘서트 미주 순회 집회를 갖는다. 이번 간증 콘서트에는 MBC ‘위대한 탄생’과 Mnet의 ‘스퍼스타 K’ 출신 여성싱어 현진주, 색소폰 연주자이자 10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중국선교사 자녀 송찬양, 퓨전 국악판소리로 활동하는 국악소녀 정겨운 등이 출연한다. 일정은 △17일(금) 오후 8시 올림피아교회 △19일(주) 오후 1시30분 주사람연합감리교회 △20일(월) 오후 7시 라스베가스웨슬리안교회 △24일(금) 오후 7시30분 생수의강선교회 △25일(토) 오후 7시30분 하나로커뮤니티교회 △26일(주) 오후 5시 토기장이교회.
▲문의: (714)614-4489



가나안성도 현상,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주제 포럼에서 양희송 청어람 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양 대표는 말했다. 양 대표는 “교회를 떠나는 그들을 크게 돌로 나눠 신앙적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떠나는 비율이 44%에 이르고, 또 비슷한 비율로 목회자와 교인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떠난다. ‘가나안성도 현상’은 현재 교회 가 얼마나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나안성도는 역설적으로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이며, 제도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 갱신을 위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양희송 대표의 발제에 이어 황병구 한빛빌라 본부장, 김재영 ITS 교수, 김현준 카이로스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경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213)388-7101, Fax: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성손복음교회</h3>  <p>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7: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 대부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lum)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allordrock@gmail.com</p>	<h3>남가주리디머교회</h3>  <p>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www.scrdm.org Tel: (213)381-2202, Fax: (213)381-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KDC, 컴플렉스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h3>등문교회</h3>  <p>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gjkc.org</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대표 : 전경목 목사 “세계를 돌아다니는 우리의 몸 목숨 위해 일하는 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목회: 김경), 사택: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k L.A., CA 90033</p>	<h3>드림교회</h3>  <p>담임목사 :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6:00(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h3>미주중앙교회</h3>  <p>담임목사 : 지용혁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8377, 8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창년회)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mpcj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Ave., #20-A Torrance, CA 90505</p>	<h3>베델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창년) 성령강화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김상익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7: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h3>얼바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3>일서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 엄경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00(영아)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찬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6:00(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h3>좋은마음교회</h3>  <p>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9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tv.com Tel: (310)530-400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 김가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2:00(영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창년) 찬양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홍재철 목사 제명·기침 복귀 승인

한기총 실행위 전격 결정...대표회장 임기 1년1회 연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9일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를 전격 제명했다. 대표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은 1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행정보류 상태였던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한기총에 복귀했다.

한기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상옥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기총 실행위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기총 긴급임원회의에 대해 홍 전 대표회장이 ‘임원회결의효력정지거처분’을 신청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홍 전 대표회장의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회장은 당시 긴급임원

회에서 구성기로 한 ‘후원금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 조사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기총 공식회의 출입이 금지됐다. 홍 전 대표회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거처분 신청을 냈다.

실행위는 정관을 개정해 대표회장 임기를 현행 ‘2년·연임 가능’에서 ‘1년·1회 연임’으로 변경했다. 대표회장 출마자격도 고쳐 증경 대표회장은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류광수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재심을 담당할 이단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의 결과 보고는 다소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단검증특위는 “기존에 분회(한기총)에서 류 목사에 대해 결의했던 바를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이단 문제는 각 교단에서 검증

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류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고 한 기존 결정을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단검증특위의 전문위원단(위원장 구춘서 한일장신대 교수)은 최종 보고 자료에서 ‘류 목사와 고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해제를 원인 무효로 해야 한다’ ‘앞으로 한기총에서는 이단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의 의미는 앞으로 한기총에서 이단해제 결정을 하지 않고 모든 이단 심의 문제는 각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70년...평화통일 위해 ‘기도의 힘’ 모은다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내달 9일 서울광장 개최 확정

다음달 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예수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의 새날을 주소서’를 주제로 광복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가 열린다.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기도회는 교단·교파를 초월해 추진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통합·백석,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8개 교단장들은 지난 6일 모임을 갖고, 기도회 준비위원회에 구성에 합의했다.

준비위 우순태 사무총장은 “이번 기도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과 1974년 엑스포74, 1984년 한국기독교100주년선교대회, 2007년 한국교회대부흥100주년기념대회, 2010년 한국교회8·15대성회 등의

연합정신을 계승한다”면서 “한국교회 및 우리 민족 모든 구성원들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 감동, 결단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통일기도회는 서울은 물론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160여 곳의 국내 주요도시와 미국 뉴욕과 시카고, 러시아 모스크바와 독일 베를린 등 90여 곳의 해외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지 교회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기도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주요 연합기관과 산하기구 및 보수와 진보, 기독교 통일운동 및 선교 관련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의 통일

비전을 담은 선언문도 채택한다. 선언문에는 분열을 거듭하며 세속화된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다짐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정 ‘선언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단에서 위원회를 파송 받아 문안 조율작업을 하기로 했다.

우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제2의 8·15 광복을 맞이하는 전환기로 삼아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기도회에 이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평화통일특별새벽기도회도 개최한다.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조직됐으며 지난 1월 1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연합기도회를, 3월 1일에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김삼환 목사)에서 1만여 명이 모여 통일기도회를 개최했다.

“동성애자 옹호 국가인권위 권한 강화 안돼”

교회언론회, 일부 의원들 법 개정시도에 우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려는 일부 국회의원의 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와 관련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무더기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주요 내

용은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고 기구를 확장시켜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회언론회는 동성애자와 에이즈 확산 간 연관성 보도를 통제하는 국가인권위의 ‘언론보도준칙’ 등을 예로 들며 국가인권위의 권한 강화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교회언론회는 “국가인권위는 2011년 9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했는데, 여기

에는 동성애에 관련된 보도를 가로막는 조항이 들어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동성애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통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처럼 한국에서 국가인권위는 초헌법적 기관이 되기 쉬운 상황인데도 국가인권위에 또 다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가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 20.6%, 20~24세 14.9%로 조사됐다”며 “10대와 20대의 높은 신규 감염률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즈 약값이 환자 1인당 한 달에 300만~500만원씩 들어간다”면서 “이를 전액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장백석은 지난달 동성애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회서신, 공동 설교문을 산하 5400여 교회에 발송했다. 같은 달 28일 주일은 ‘동성애 반대 주일’로 지키고 교회와 성도의 가정애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전문위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가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임을 설명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의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해 동성애자의 에이즈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내국인 에이즈 환자 연평균 증가율이 15~19

다. 이 대표는 또 연 1회 ‘동성애 반대 주일’을 제정, 전국 교회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 배 때는 지역별 연합예배나 국민대회 등의 방식으로 동성애 반대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김지연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은 ‘동성애의 사회적 비용과 학교실태’라는 제목으로 동성애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전문위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가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임을 설명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의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해 동성애자의 에이즈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내국인 에이즈 환자 연평균 증가율이 15~19

소 경험하게 된다. 새로운 지평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향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이 율을 깨닫는다.

감사로 내가 변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변하면, 우리는 감사로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된다. 만약 공동체의 리더가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다면 그 리더 덕분에 공동체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가 바로 행복을 퍼뜨리는 천사인 셈이다.

한기총, 최종보고서 해석 놓고 논란

“이단검증은 교단 의견 존중”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이단검증 특별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한기총 실행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류광수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재심 결과를 놓고 진의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기총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류광수 목사, 이단성 있느냐=이단검증특위는 실행위에서 “전문위원들

고 밝힌 대목이다. 전문위는 “한기총의 분열 원인이 되었고, 통합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있는

단 문제는 각 교단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기총은 각 교단의 결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교단·기관들, “진의 파악한 뒤 논의 착수”=한기총 이단검증특위에 전문위원을 파송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변창배 기획국장은 “한기총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전문위 “류광수 이단해제 결의 무효”

실행위 “전문위 뜻 수용...이단성 없어”

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면서 “(류 목사에 대해) 기독교인이나 구원론 등의 신학 근본사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교회론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단성을 논할 정도는 아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류 목사에 대한 분회(한기총)의 결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이단 문제는 각 교단에서 검증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등의 결의 내용을 밝혔다. 류 목사에 대한 한기총의 이단해제 결정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와 함께 향후 한기총은 이단 판정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논란의 핵심은 류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한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이단검증특위가 “전적으로 수용한다”

한기총의 이단해제 결의를 원인 무효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결론으로 제시했다.

이단검증특위가 사실상 ‘이단성 없다’고 판단한 부분과 달리 전문위는 “과거 이단해제 결의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교계 주요 인사가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전문위의 견해, 즉 ‘이단성이 있다’는 의견을 이단검증특위가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놓고 ‘기존 결의 존중(이단성이 없다)’이라는 결론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기총 관계자는 12일 “이단검증특위의 보고 내용은 전문위원들과 검증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내린 판단”이라며 “특정 내용만을 부각해서 전체적인 결론을 곡해해서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이

직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 “먼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교단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장백석 이경욱 사무총장은 “조만간 검증 작업에 동참한 전문위원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단 규정과 해제는 각 교단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 “연합기관이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한기총은 한교연 성명서에 동의한다”면서 “한기총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환골탈태하고 개혁해 연합회 일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일치로 한국사회에 선한 영향력”

한장총 주최 ‘2015 장로교의 날’ 2천명 참석

한국 장로교 2000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통일과 사회통합, 교회의 화합을 다짐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광복 70주년 2015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한국장로교회-제7회 장로교의 날’ 행사를 열고 교계와 사회를 향해 개혁과 화해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선 특히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 ‘연합’ ‘하나 됨’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행사는 라파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24개 장로교단의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했다. 대회장을 맡은 황수원 한장총 대표회장이 “한국장로교회가 하나 되면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황 대표회장은 개회선언에서 “70은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으로 바빌론에서 70년 만에 해방을 맞은 것과 같은 숫자”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이다. 통일은 우리교회가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야 할 과제이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효

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광복 후 70년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향후 70년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자”고 권면했다.

준비위원장 백남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연합과 일치에 뜻을 모아야 한다(시 133:1)”며 “하나가 돼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동성애 조장, 가정해체 등 가정에 해로운 세속문화에 성경적 진리로 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역할 등을 돌아보고, 향후 70년의 과제와 비전을 모색했다. 2부 장로교 전통에 따른 예배에선 성찬식 집례를 통해 분열과 갈등으로 나눠졌던 장로교의 역사를 회개하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했다. 3부 비전선포식에서는 예장 통합과 합동, 백석, 고신 총회의 부총회장과 비전선포식 작성위원장인 김성봉 신반포교회 목사 등 5인이 대표자

로 나서 광복 70주년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성경 중심의 개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연합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등 7개 항목의 실천강령 구호를 외쳤다. 이어 교단 총회장과 총무(사무총장)들이 강단에 올라 장로교 화합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한장총 전 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한국 교단 다 체제와 복음화된 통일교회 건설의 모토인 통일장로교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의 하나 됨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으로 상징된 남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조국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이스라엘 역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듯이 우리 민족 역사의 주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따라서 민족의 복음화, 곧 신앙의 하나 됨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일을 이루려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자처하는 한국장로교회가 먼저 하나 됨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장총은 2009년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장 칼뱅(1509~1564)의 생일인 7월 10일을 ‘한국 장로교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장로교는 한국 개신교 성도의 65~70%를 차지하지만 크고 작은 교단 200여개로 분열돼 있다.

총신대, 김영우 이사장 총장 선임

운영이사회 일사천리 진행...찬성 79 반대 22표 확정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10일 서울 사당캠퍼스에서 회의를 갖고 운영이사회가 선임 총장 후보로 선임한 김영우(서천유교회) 목사를 제6대 총장으로 최종 인준했다.

재단이사회는 안건 처리에 앞서 부이사장 안명환 목사를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정했다. 이어 김 목사가 제출한 재단이사장 사임서를 수리한 뒤 총장 선임의 건을 심

의,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김 선임 총장은 “열심히 총성을 다해 직임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총신대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총청노회장, 기독교신문 주필, 총신대 재단이사장을 역임했다.

앞서 열린 총신대 운영이사회에서는 재직 운영이사 144명 가운데 102명이 출석해 찬성 79표, 반대 22

표, 무효 1표로 김 목사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 백남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은 투표에 앞서 “총신대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어떤 것이 총회와 신학교를 위한 것인지 잘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선임 총장 선임으로 지난달 25일 김지연 전 총장이 사임한 이후 심상범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던 총신대는 15일 만에 정상화됐다. 김 선임 총장은 길 전 총장의 잔여 임기인 2년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1면에서 계속)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든 예상하지 못한 좌절과 수없이 맞닥뜨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때부터 모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당신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바로 이런 순간에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고 감사의 표현이다.

감사는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따라서 감사는 리더십의 기초다. 리더는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섬기는 리더, 존경 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십의 기초를 감사로 탄탄히 다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의 덕을 배울 수 있다.

감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선물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나눔으로써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도 몫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미안마개혁신학교교수, 이슬람 선교 전문가)

ISIS는 이슬람이 아닌가?: 이슬람과 ISIS 관계 연구(2)

메카의 이슬람과 메디나의 이슬람
이슬람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622년 메디나 정복 이후의 무함마드 사상과 640년 메카 점령 이후의 사상에 차이가 있다. 크레그는 이것을 메카 코란(Meccan Qur'an) 혹은 메카 무함마드와 메디나의 호전성(Medinan belligerence)으로 묘사한다.
메카에서 코란은 부드러운 면이 있으나 메디나 이후 코란은 전투적이고 강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 메카에서는 무함마드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사랑하고 다른 종교와 평화적 공존을 가르친다. 그러나 메카

라만이라는 뜻을 가진 "인사 알라(insha Allah)"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기독교의 신의 섭리를 강조한다.
코란(Qur'an)
이슬람은 경전인 코란을 아주 절대시한다.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이 신성모독죄로 수난을 당한다.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코란(책)을 찢거나 찢어진 코란을 들고 다녔다는 것이다. 오래전에 한국군대 병사들은 기드온 단체가 선물로 준 성경을 찢어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있었다. 이슬람식으로 하면 "사형감"이다.

고등교육의 귀중한 원천이 된다.
무함마드 사후 3세기에 수니파와 무슬림학자들은 여섯 가지의 권위 있는 하디스를 편찬했다. 그러나 하디스도 형성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 지금도 하디스를 채택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이슬람 안에서도 상이하다. 시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완전 무결성을 주장한 반면 수니파는 좀 다른 사상을 가진다.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
예언자의 사후 수십 년 동안에 이슬람 공동체에는 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확정되었다. 이것을 이

얌아도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라마단 기간에 도리어 식품매상이 다른 달보다 더 많다고 한다.
5) 순례: 무슬림들은 가능한 한 일생에 한 번 이상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순례는 이슬람력으로 12월 7일부터 10일 사이의 기간에 행하며 많이 할수록 더 좋다. 순례자는 우선 신성한 직면체의 바윗돌인 카비를 일곱 번 돌고 난 후 그 옆의 조그마한 검은 돌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쓰다듬는다. 그 다음 메카에서 메디나를 거쳐 아라파트 평원으로 가며, 끝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즈다리파라는 곳에서 밤을 보내면서 소, 염소

신학적으로 '이전계시 무효설' 강조 호전적 메디나 지향
유일신 '알라' 주권 강조 · 예언자전승은 종파 따라 차이
다섯가지 기둥, 최근에 지하드 첨가 여섯가지 기둥으로

이후 계시는 두 종교를 엄청나게 정죄한다.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가르친다. 이슬람은 신학적으로 마지막 계시는 이전의 계시를 무효화하는 소위 이전계시 무효설을 강조한다.

2. 이슬람 기본교리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슬람의 신앙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다. 대영백과사전은 알라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기독교와 비교한다.
어원적으로 알라는 아랍어 알 일라(al-ilah : The God)의 단축형인 것 같다. 알라는 이슬람 신앙의 핵심이다. 알라의 세 가지 중요한 주제는 ①알라는 창조주심판자이며 상주는 존재이다. ②알라는 유일하다. ③알라는 전능하고 자비로운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알라는 무서운 심판자 이미지가 강하여 사랑과 자비가 없는 것은 말한다. 알라의 주권을 아주 강조한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의 사도라는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mer)는 일찍이 세계는 알라의 주권을 외치는 이슬람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크게 충돌할 것으로 예언하였다.
이슬람의 본질은 "알라에게 복종하라"이다. 무슬림들은 "신의 뜻이

코란은 아랍어 동사 '읽다qa raau'의 파생어로 '읽는 것', 즉 '독경'을 뜻한다. 코란은 신의 말씀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알라의 명을 받아 문맹(文盲)인 예언자 무함마드라는 인간복사기를 통해 한 자, 한 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인류에게 전달했다고 믿는다. 따라서 코란은 번역되면 "코란의 해석"이 된다. 한국어 코란은 "알코란의 해석"이다. 이것은 아랍어를 절대시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절대신의 말씀"을 운율에 맞추어 낭송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나 불교의 승려들이 불경을 읽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코란은 114장 6천200여 절로 나누어져 있고 가장 긴 장은 오늘날의 인쇄체로도 30여 쪽이 되지만 짧은 것은 불과 3, 4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랍어로 장은 수라Sura, 절은 아야Ayaa라고 부른다.
하디스: 예언자의 전승
코란의 해석이 어려울 때 무슬림이 의존하거나 인용하는 권위 있는 자료는 하디스Hadith다. 하디스는 전통 혹은 전승을 의미하는데, 무함마드의 말과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 코란에 버금가는 권위로 간주되며 이슬람 역사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용은 코란의 해석에서부터 교리, 이슬람 신학, 심지어 희랍철학까지 망라하기 때문에 이슬람

슬람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백, 기도, 헌금, 단식 및 순례이다. 하와리파는 이 다섯 가지에 성전행위를 추가해 여섯 가지를 기둥으로 간주한다.
1) "알라는 위대하시다Allah Akbar", 알라는 한 분밖에 없으며 무함마드는 신이 보낸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고리문답 공부 없이 이것만 고백하면 무슬림이 된다.
2) 기도: 하루 다섯 번 한다. 해 뜰 무렵, 정오, 오후 4시경, 해질 무렵, 잠자기 전에 한다. 고백 혹은 예배는 혼자서 할 수 있으나 이슬람 성전에서 하는 것을 장려한다. 금요일 큰 모스크 입구에는 손과 발을 씻는 시설이 있다. 간단한 샤워시설도 있다.
3) 자카트: 이슬람 교리에도 봉사와 헌납을 중시한다. 이것을 자카트라고 한다. 일종의 종교세와 같다. 이슬람 세계는 봉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은 바로 자카트 때문이다. 구약의 십일조와 유사하다.
4) 금식은 이슬람력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 한 달 동안으로, 매일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 피우는 것 및 성적 욕구를 자제한다. 그러나 해가 진 후에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국가에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낮에는 굶어야 하지만 밤에는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병자와 신부는 다른 날에 금식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금식하지

등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순례는 끝난다. 순례를 다녀오면 자기 집마다 특별한 불을 켜다든지 화환을 건다든지 해서 이웃에게 자랑한다.
최근에는 지하드를 첨가하여 여섯째 기둥으로 말한다.
이슬람 법률: 샤리아(Shari'a)
샤리아는 개인의 규범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규범이요 원칙이다. 샤리아의 본래의 뜻은 '물 마시는 곳으로 안내하는 길'을 의미한다. 샤리아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보면 9세기 말에 다수의 이슬람 범법자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샤리아와 서구 법 사이에는 두 가지 근본적 차이가 있다.
샤리아는 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절대신과 인간, 양심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둘째는 샤리아는 서구법과는 달리 알라가 무함마드 사후의 사회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샤리아는 변화하지 않는다. 샤리아에 의하여 지금도 사우디에서는 참수형이 행해진다. 사우디에서는 2005년에만 191명이 처형되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외국인이다. 2006년에는 38명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수백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메일: hjun01@hanmail.net



코스타리카

이제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의 절반이 지나도록 바쁜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 개월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무료이동진료 버스가 이제 거의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크고 작게 헌신하여주



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전 고 김옥란 사모님과 함께 꿈꾸었던 무료이동진료소가 이 땅에 마련된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번 Rio Azul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Dr. Stanley Topple이라는 한국명 '도성래'라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유창히 구사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분은 한국 선교역사가운데 아주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참고: 내한선교사 130주년 특집다큐 '블랙마운틴' Youtube).
한국과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1959년 27살 총각으로 한국에 들어가 22년 동안 여수 애양병원에서 원장으로서 한국의 한센병을 퇴치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또 그 공로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민훈장까지 받았던 한국인들에게는 큰 은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시며 이제는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떠나야 한다며, 한국보다 더 낙후된 땅, 아프리카 케냐에서 또 다른 20년의 기간을 선교사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분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의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통하여 저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께도 큰 감동을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덴버에델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세환</p> <p>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p> <p>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scchurch.org</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중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jhs.org</p>	<p>벤엘교회</p> <p>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유치, 유년노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4</p>	<p>샬롯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98(팩스컴)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안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church.org</p>	<p>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강중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48-3825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www.omychurch.org</p>	<p>알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hs.org</p>	<p>앵커리지델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제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스델린문교회</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letram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어린이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c.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선교 편지

영화선교

하나님의 문화 개혁과 확장을 위해 부름받아 나선 영화선교사 이성수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작년 2월 캐나다와 미국 집회를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보냈던 기도편지에 이어 1년 반 만입니다.

저는 120 한국교회 집회에 이어 캐나다와 미국의 120교회 집회를 주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생소한 소재인 북미원주민 선교영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놀라운 받아들임과 이미 원주민선교의 문이 많이 열린 캐나다에서 열렬한 환영이 있었고 앞으로 원주민 선교로 나아가갈 미국에서 큰 변화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DVD를 제작하여 매칭펀드 형식으로 성도들이 1장 구매해주면 원주민 마을과 백인교회에 1장 보내는 운동을 벌인 결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동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미주 중부와 서부 지역을 방문했고 이제 동부지역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원주민 마을과 백인교회에 무료로 DVD를 보내는 운동은 앞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남미와 유럽,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집회를 계획했으나 지난 5년에 걸친 씁쓸한 강행군으로 영육간에 더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일단 안식을 취하고 다음 기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소년의 물고기와 보리떡을 받으시고 그것에 축사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소외되고 외면 받던 원주민들의 아픔과 치유를 담은 "뷰티풀 차일드"에 축사하셔서 기적처럼 240개 교회의 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기독교 영화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뷰티풀 차일드"는 50만불의 재정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3명의 투자자에 의해 20만불의 투자가 있었고 30만불은 한국, 미국, 캐나다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극장 수입은 없었으나 교회 투어로 총 25만불의 헌금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편집, 극장 개봉의 홍보비로 약 10만불, 투어 기간의 유지비로 약 10만불 사용되었고 그리고 남은 재정으로 다음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연말까지 사용되던 참 놀라게도 5년전 시작할 때와 같이 다시 제로베이스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원주민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회복, 그리고 백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고 알릴 기회가 되었음에 한 마음으로 함께 감사하는 용납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많은 교회에서 원주민들의 아픔에 동참했고 또 원주민 선교에 나

아가게 되었음이 큰 성과였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성과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열매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 헌신한 이후 늘 입히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얼마 전 비교적 부유한 친구를 만났는데 은퇴직정, 노후걱정을 하더군요. 집 한 칸 없는데 걱정을 물어둔 제 자신을 바라보니 참 이상하더군요. 있는 자는 전쟁인데 없는 자는 평화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팟에이션 그리스도 에수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성도가 자랑할 재산이라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사119:56)

오히려 친구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손만 의지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음에 주님의 큰 안위와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3월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몇년간 아내에게 부여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아내가 신학을 결정해서 백석신대원에 진학했기에 저는 사랑하는 밴쿠버를 뒤로 하고 저희 가정을 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3개월의 안식을 취하고 이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제목은 나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성경통독시 주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강력하게 부여주셔서 다니엘 금식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과 뜻과 힘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2. 수년전 제주열방대학에서 SBS(귀납적성경연구학교)를 할 때부터 구상했던 소설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가제는 "외출(ONE LINE)"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호와의 손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외출 같은 험난한 시대를 살 수 없습니다. 유대 패망시대를 함께 살았던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을 등장인물로 내세워 이 시대를 비추려고 합니다.

3. 교회를 집회하며 선포했던 다음 세대를 위한 영화 "I AM CHURCH" 리서치 중입니다. 주께서 비느하스의 집투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젊은 늙은이 새로운 세대이며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다고 마음 주십니다. 라이즈 업코리아 등 청소년들의 집회에 참석하며 새로운 물결에 조금씩 젖어 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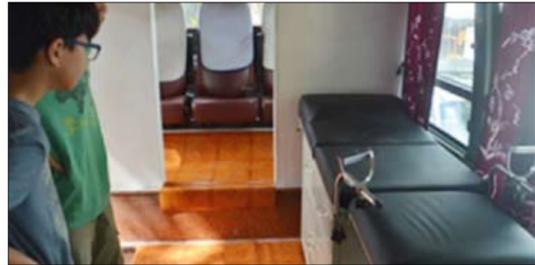
4. 마지막 뷰티풀차일드 DVD 보급을 위해 하반기에 뉴욕과 토론토를 방문합니다. 원주민 마을과 백인 커뮤니티 간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5. 내년에 시나리오 작업이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전국 교회 펀드레이징을 위한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맹연속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선가 동일한 비전을 가진 동역자들을 훈련케 하신 후 그때에 함께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신실한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7월1일 영화선교사 이성수 드림

이메일: gabrielkim1004@gmail.com



(13면에서 계속)

또 돌아가시며 내년에는 꼭 진료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진료하고 싶다는 아쉬움을 남기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시온교회의 안정화와 다문화가정 예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저와 제 아내가 이곳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루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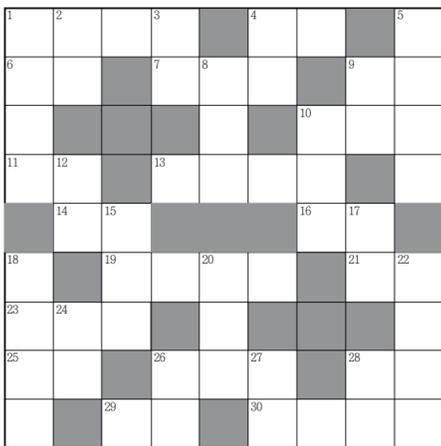
3.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4. Rio Azul교회의 Maria Ortiz 자매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충실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매입니다. 신실한 청년이기에 그를 도와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축구 장학사로 노스캐롤라이나의 Montreat College에서 공부를 시키려 합니다. 이를 위해 빌리그래햄 목사님 출신교회인 Christ Community Church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청년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변한 그가 다시 돌아와 교회와 지역을 위하여 헌신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김혜린 선교사 올림.
이메일:

십자말 • Cross Word (89)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고린도교회 신자로 바울이 반가이 맞음(고전16:17).
- 베냐민지파의 한 족속의 조상이다(민26:35).
- 갓성의 블레셋 왕 아가스의 부친(삼상27:2).
- 유다지파에 있는 마세라 근처 골짜기(대하14:10).
- 비스듬히 기울어짐(행27:39).
- 아하수에로 왕의 일곱 시종관 중의 한 사람(에1:10).
- 돼지우리(명).
- 피발이라는 뜻(행1:19).
- 두 면(출32:15).
- 신년(창47:18).
-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이렇게 변했다(골1:1).
-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행위(에6:2).
- 물건을 담보로 돈을 꾸어주는 곳(명).
- 내력. 연분(왕상3:1).
- 사사, 왕, 제사장들이 재판할 때 앉았다(롬14:10).
- 장사를 하는 사람(잠31:14).
- 넓은 마당(느8:16).
-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애4:2).

<세로 푸는 열쇠>

- 므깃도 산의 별명이다(계16:16).
- 집(사5:8).
- 소아시아 서남해 중에 있는 작은 섬(행21:1).
- 소바왕 하닷에셀의 수부. 늦이 많음(대상18:8).
-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생김(고사성어).
- 음악 친구 엘리후의 부친(욥32:2).
- 연행이 경박하고 천박함(사9:4).
- 다윗의 군대장관의 한 사람(대상12:18).
- 결혼식 때 신부가 쓰는 면박(상식).
- 바다. 후수, 하천이 합치는 곳의 반도보다 작은 육지(사11:15).
- 자기 눈에 물대기의 뜻.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로운대로 함(고사성어).
- 바둑 두는 관(왕상7:17).
- 발목에 거는 고리(민31:50).
- 이치로 보아 마땅히 그러할 것임(눅23:41).
- 염통(삼하18:14).
- 두 사람의 말이 어긋날 때 판 사앞에서 대면시켜 따짐(욥9:32).
- 코끼리의 어금니(야5:14).

십자말 정답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DYNAMICS 다이내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지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괴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89)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12)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 중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을 통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교회와 세상을 위해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준비를 갖추게 하는 데 있다" The purpose of Christian education is to equip the church-his people-for works of service라는 교회 교육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중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즉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돕는 것이다."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지체들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물론 각각 그 사역의 독특성이 있음에도 그들은 모두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교육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기독교 교육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이유는 모든 성

이것이 구체적으로 체현되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라 표현된 "신앙 형성과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사실 위의 본문에서 강조한 "섬김"이라는 부분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소통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위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표현해왔던 것들-신앙형성과 영적 성숙이라는 표현을 포함해서-, 이들 자체의 최종 목표가 바로 "세상과 교회를 섬김(works of service)"에 있다는 것

최종 목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와 세상 섬길 수 있도록 지적, 정서적, 의지적, 신앙적, 영적 역량 갖추도록 가르쳐야

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총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나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전제로서의 교회의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신앙을 공고히 하고 그 신앙에 결맞게 교회 안과 밖에서 사역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적인 주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이를

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앎을 경험하고, 이로써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 최대한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가도록 하고, 또한 이로써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13절).

교회의 교육자들을 세우신 이유, 즉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게 온 성도가 함께 세상과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듣고 이야기 해 온 바와는 사뭇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교육의 목표를 이야기 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적 측면에 더 많은 강조를 두고 혹은 실상 더 많은 강조를 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그러한 뉘앙스를 가진 채 논의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저는 흔히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설명할 때 "기독교 교육은 회심 후 신앙형성과 영적 성숙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 견지에서 본다면, 확실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과 관련된, 그리고 공동체적인 의미로서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신앙형성과 영적인 성숙이라고 했을 때,

입니다. 즉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개인적인 신앙 및 신앙생활의 강화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세상과 교회를 위해 섬김의 사역을 행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며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교회와 사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이러한 담론을 표현하고 늘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위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

우리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선교사), 목사 및 전도사로, 또는 교사로, 이중 어떤 구체적인 사역의 범주에 속해 있는지 일종의 교회 교육 담당자들로서 우리의 교육 목적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지적, 정서적, 의지적, 신앙적, 영적 역량을 갖추어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기초인 것입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회의 영원한 승리(계11:10, 11)찬89장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재앙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그 내용이 상충되면서 점진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일곱세대로 구분하는 해석은 계시록의 상징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불신자는 심판받으나 신자는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일하시는

장면입니다(7). 성자의 죽음으로 성취된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완성되고야합니다. 셋째, 그 구원에 동참한 신자는 그의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일에 힘써야합니다(9). 작은 책을 먹을 때는 입에 단 체함을 했으나 지킬 때는 쓴 체함 곧, 고난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신자를 새롭게 하여 완전한 구속세계에 넉넉히 들어가게 합니다.

화 사도가 본 계시(계4:1-11)찬450장

사도요한이 본 계시의 순서는 인자, 교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어린양의 구속이 완성된 장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보좌에 앉은 이의 모습이 백옥, 홍보석, 녹보석 같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실한 성품의 표현입니다. 그의 성품을 따라 지음 받은 나도 그의 성품인 거룩과 의와 진실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 성품으로 충만할 때만 진정한 만족이 따릅니다.

다. 둘째, 성부의 성품은 고급천사인 네 생물에 게도 나타났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계시입니다. 사자같은 왕권, 독수리같은 거룩, 송이같은 능력의 섬김, 사람같은 지혜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중성품, 사중사역으로 그 구속을 이루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네 생물의 섬김의 본은 오직 성령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입니다.

수 완성된 구속(계5:13하)찬408장

본문은 첫째, 제4, 5장은 천상구도를 보여주는 계시의 그림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을 중심해 네성물, 24장로, 천군천사, 만물이 그를 향해 찬송하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신자의 위치는 24장로의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24는 택한 수이고 그들의 손에 금겨문고와 금향로를 가질 뿐 아니라 자기면류관을 벗어 그 분께 던지는 행위가 따르고, 어린양이 부르는 구속의 노

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도 속에 지상교회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송, 예배, 구제, 봉사 등 모든 행위는 보좌에 계신 분에게 올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둘째, 만물의 찬송과 오직 하나님과 어린양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현상은 1) 완성된 구속의 세계 2) 모든 찬송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돌리지는 세계 3) 만유가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목 요한이 본 계시의 성격(계1:1-7)찬168장

계시록은 모든 계시의 끝자를 모아놓았습니다. 이미 예언된 구원자가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성령이 교회에 적용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여기서 실락원이 복락원으로, 아담을 유혹하던 사탄이 유혹불심판을 받고 택한 자기백성이 만왕의 왕을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의 승리를 하며 어린양의 방법

으로 사자 같은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인자를 우리는 봅니다(1). 둘째, 바울의 인사는 성부와 성자를 통한 은혜와 영광인데 요한의 인사는 거기에 일곱영이신 성령을 통한 사역을 더합니다. 이미 완성된 구속의 공로는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전달돼 누리게하는 일이 성령의 분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관심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어야 합니다(4).

금 교회의 능력(계1:20)찬190장

본문은 교회에 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사도요한이 본 계시는 예수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시자도 되시고 그 자신이 계시이십니다. 고로 그의 33년 지상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신자의 모든 사상과 삶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예수로 인해 시작됐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완성 곧 예수와 함께하는 일

생이 신자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그가 본 계시는 천상과 지상, 과거 예언동산과 현재 교회사역, 그리고 장래의 아말겔론, 천년왕국 및 천당까지 총망라한 종합적 계시의 성격을 갖습니다. 둘째, 그는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교회를 일곱축대로 비유하며 주의 사자(담임목사)를 일곱 별이라 했습니다. 그 교회를 살피고 별들을 붙드시는 분이 인자이십니다.

토 심판에 동참한 신자(계14:14-20)찬502장

신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에 동참합니까? 첫째, 흰구름 위에 있는 날선 칼 가진 천사는 심판의 임무를 받았습니다(14). 구원과 심판이 아울러 굴러가는 세상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일하십니다. 둘째, 16절 거두시는 곡식은 구원받은 택한 자인 교회입니다. 알곡을 거두시는 구원의 역사는 교회에서부터 개인영혼 속에서 일어납니다. 셋째, 17-20절 익은 포

도송이를 거둬 진노의 포도주틀에 넣는 일은 심판의 일면을 보이는 그림으로서 불행자의 심판이 이 땅에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영원한 지옥심판의 전주곡입니다. 이를 찾으시는 주님의 열심을 이것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성경을 믿어 구원받은 나의 증거가 이처럼 권위가 있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1)237-6754~5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지체예배: 오후 7:30 Tel: (02)264-8311~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p>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an.org Tel: (82)2-490-7000, Fax: (82)2-496-5770 서울시 동양구 광우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오월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2~9, Fax: (031)977-8382 (우)410-831 동탄신도시 일산신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회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5: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후 6:30 Tel: (82)2-2648-3181~3, (82)2-2646-3184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520 (142-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북부동 221-43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37 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구름동로 172 291(감일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동구 제기동 146-7</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창신구 양곡동 415 www.yangok.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성경: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410(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9-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인/터/뷰

신혜지 양(브롱스과학교 11학년)

유엔 개최 '디지털 글로브 브라이트 아이디어 대회' 우승

“광대한 우주...하나님이 만드신 것 증명하고 싶어요!”

한인 여고생이 최근 유엔에서 개최한 '디지털 글로브 브라이트 아이디어 대회(Digital Glove Bright Ideas Competition)'에서 우승했다는 보도가 뉴욕의 일간지를 통해 알려졌다. 이 대회는 지도를 활용해 커뮤니티를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 아이디어를 겨루는 이 대회다.

우승자는 브롱스 과학교등학교 11학년 신혜지 양으로 11학년 고등학생들로 이뤄진 약 100개 팀이 참가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팀을 이뤄 위성 시스템과 지도, GPS, 기후학 등을 결합해 가뭄에 대한 정보 파악 데이터 모바일 앱을 소개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이 모든 우주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주는 너무나 넓고 크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우선 대학을 가야하는데, 예일이나 캘리포니아텍이나 MIT 등 어느 곳이든 오라는 곳에 가려고 하다는 신 양은 “의학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아 사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대회 준비 중 갑작스레 주제 변경으로 준비기간이 짧아 우승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신혜지 양은 “



“별들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주공학의 할일이다. 항공 우주국(NASA)에서 별에 대한 연구를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지구 밖의 다른 천체에도 꼭 가보고 싶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생과 엄마와 함께 유학생으로 도미한 신 양은 미국에 오자마자 출석하고 있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유스 오케스트라에서는 바이올린 주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에는 단기선교도 가는 등 활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올 여름에도 필라델피아 빈민가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머캠프에 교사로 참여한다. 퀸즈장로교회가 지난해부터 시작

서머캠프 단기선교, 오케스트라 찬양팀으로 봉사 우주공학자로 한국 우주공학 발전에도 도전 기대

빅뱅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든지 다 '이론(theory)이고, 창조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론이죠. 우주공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과의사인 할아버지, 약사인 할머니 등 친가 쪽이 의사 집안이라 신 양도 미국에 오면서 의학공부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6학년 때 우연히 행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주공학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우주공학이 비인기 과목임에도 부모님께서 쉽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허락이 있어서 별 난관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신 양은 주변의, 특히 아시아 안 부모님들은 모두 의사나 변호사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한다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한마디 조언도 한다.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결국 잘하게 된다”라는 명언(?)도 남겼다.

걸리지만 우주공학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죠. 공부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원망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나... 하하.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뿐 아니라 더 많고 큰 것들이 수도 없잖아요. 공부할수록 크다는 생각이 들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신 양이 미래에 일하게 될 나사(NASA)와 한국은 협력관계가 없다고 한다.

“한국에 유명한 천문학자는 많아요. 저와 같은 나이인데 한국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의 후원이 없어요.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주공학의 후발주자인 중국은 현재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미국과 견줄 만한 실력도 갖춰가고 있다며 신 양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디지털 글로브 브라이트 아이디어 대회'에서 신 양 팀이 우승한 프로젝트는 계속되는 캘리포니아 가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올 여름 방학에 필&델리다 게

무엇보다 구글과 아마존 같은 대기업의 개발자 및 간부들과 만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그들의 이치가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 분야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말한 신 양은 인터넷과 학술 자료를 뒤져가며 공부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직접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멘토를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 지난해 렌슬러 폴리텍 공대(RPI)의 한 교수가 멘토를 자처하면서 리서치 과정에서 조언을 받고 있었다.

올 여름 가뭄에 대한 정보 파악 데이터 모바일 앱 상용화 프로젝트와 더불어 내년엔 열리는 인텔 과학경시대회와 구글 과학대회도 준비 중이다. 내년 대회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많은 별마다 다 특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별들도 많기 때문.

한 도시선교 프로젝트의 하나다. 지난해 성과가 좋아 올해도 계속된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빈민 지역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한다. 20대 초반 청년들이 4-5명씩 그룹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미국 전역 50개 도시 지역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교 프로그램이다. 보수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되는데, 큰 보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도 하나님의 작품임이 틀림없지만 세상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학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찾아가는 예비 우주공학 학자 아니 이미 우주공학의 길에 들어선 신혜지 양에게 세계 우주공학 분야에서 미국내 한인으로는 아니나 한국의 우주공학 발전에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앞선 기대일까?

(유원정 기자)



태평양법률협회(PJI) 주최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보호 긴급설명회에서 PJI 회장 브래드 데이쿠스 변호사가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반동성정책 안전위해 정관개정 시급

태평양법률협회, 교회보호 긴급설명회

태평양법률협회(PJI) 회장 브래드 데이쿠스 변호사) 주최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보호 긴급설명회가 13일 오후 2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6일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진 동성결혼합법화 결정에 따른 교회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마련됐다.

송정명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의 사회로 열린 설명회는 본 협회 회장인 브래드 데이쿠스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현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브래드 변호사는 “이번에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절망적인 것이다. 당초 예상은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지만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정상적인 결혼을 하는 것과 동등한 선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그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 판결”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것은 동성결혼 외에 수간과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아성애 등 모든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결정은 부부관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성적인 욕구가 어떤 것이든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일부다처제는 물론 근친상간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래드 회장은 앞으로 다뤄야 할 일들에 대해 “△기독교학교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공제혜택 박탈: 과거 밥존스 대학에서 국제결혼자들에 대한 입학불허정책으로 세금공제혜택을 박탈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밥존스 대학의 교칙에 국제결혼자 입학불허조항은 삭제됐다. 하지만 아직도 학내에서 국제결혼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가 있어 현재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학교에 대해 반동성애정책이 유지될 경우 세금공제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2-3년 내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스코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채용하지 않을 시 연방정부의 세금공제혜택 박탈: 이 부분은 친동성애 그룹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목적중 하나다. 스자녀양양 시 선택권이

자녀에게 있었던 것을 부모에게 전환: 입양시 자녀들의 선택권이 우선시 되던 것들이 부모선택권으로 전환이 된다. 스공립학교의 영향력 강화: 서부에서 동부까지 공립학교 내 친동성애 교사들의 권위가 강화됐다. 이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견집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브래드 회장은 “아직 연방대법원 판결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첫 번째 타겟은 기독교학교다. 학교들에 대한 세금공제혜택 박탈 등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며, 교회와 목회자는 가장 마지막에 손을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법(바이로)과 내규에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새로운 교회법은 주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이 영여권국가인 만큼 교회법과 내규 등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크리스천업체인 꽃집이나 케이크하우스 등 업체에서 동성애 이벤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폐쇄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업장내 정관에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교육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법 양식(Privacy Opt-Out Form)을 만들어서 학교당국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동성애(동성애, 성전환 등)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도서실에서 자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브래드 회장은 “교회와 사업장, 그리고 학생이 신앙적 양심에 따른 반동성애적 행동에 대해 불이익에 대한 위협이 없 때 언제든지 PJI에 연락하면 법적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13)284-4204/주성철 목사, (714)640-7471

(박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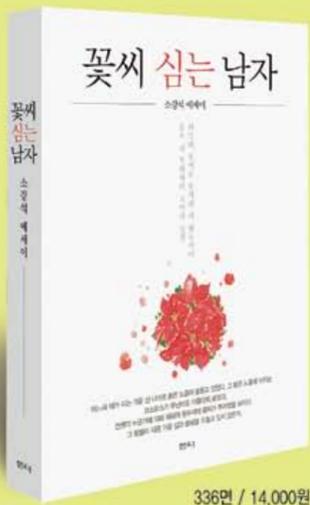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려가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야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평화의 꽃씨

을 열어주소서



251면 / 10,000원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들!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주십시오!
소강석 지음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